

深河戰鬪의 名將 金應河와 『忠烈錄』 판화

유미나 | 국립문화재연구소

〈목 차〉

1. 머리말
2. 深河 전투와 金應河의 戰死
3. 金應河 顯彰과 『忠烈錄』의 간행
4. 『忠烈錄』 판화의 내용과 특징
5. 맺음말

1. 머리말

16세기말에서 17세기 전반에 걸친 격변기 明과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피폐되었을 때 만주에서는 누르하치(奴兒哈赤; 1559-1626)가 여진족의 여러 부족을 아울러서 큰 세력으로 성장하고 마침내 1616년 後金을 건국하였다.¹⁾ 1618년 누르하치가 요동지방을 침입하고 撫順과 清河를

1) 後金의 성장과 건국, 당시의 긴박했던 국제정세와 조선의 대응에 대해서는 李丙燾, 『光海君의 對後金政策』, 『國史上의 諸問題』1(국사편찬위원회, 1959);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29,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국사편찬위원회, 1995), pp.211-236; 고윤수, 『광해군대 조선의 요동정책과 조선군 포로』, 『동방학지』123(2004); 韓明基, 『16, 17세기 明清交替와 한반도』, 『명청사연구』22(2004); 계승범, 『광해군대 말엽(1621~1622) 외교노선 논쟁의 실제와 그 성격』, 『歷史學報』193(2007); 김성민, 『명말 요동 변경지역을 둘러싼 명-후금-조선의 삼각관계』, 『中國史研究』55(2008); 남의현, 『明末 遼東政局과 朝鮮』, 『인문과학연구』26(2010) 외 참조.

深河戰鬪의 名將 金應河와 『忠烈錄』 판화

차례로 함락시키며 명에 적대 세력으로 대두되자, 명은 후금 정벌에 나서게 되었다. 명은 遼東 經略 楊鎬의 총지휘 아래 총 병력 10만 명을 4隊로 나누어 후금의 근거지 공격을 기도하였는데, 명의 요구에 따라 조선에서도 마지못해 일만여 병력을 파송하였다. 이듬해인 1619년 3월 명나라는 심양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였으나 후금군에게 대파되었고, 함께 출정했던 조선군 左·右營도 순식간에 패몰되었으며, 조선군의 주전력이었던 中營은 투항하였다.²⁾

金應河는 조선군 좌영장으로서 심하에서의 이 전투에서 後金의 습격을 받아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며, 중과부적으로 전투에서 밀리게 되자 버드나무 아래에 버티고 서서 활과 검으로 끝까지 후금군에 대적하다가 전사하였다. 김응하의 戰死는 憂國忠節의 표상으로서, 또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병을 보내준 명나라에 대한 보답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尊周攘夷의 측면에서 높이 숭앙되었다. 『충렬록』은 그의 충절과 죽음을 기리기 위해 1621년에 간행된 책으로서 그 첫머리에 그의 초상화와 戰鬪 장면 등을 그린 판화가 여섯 점 포함되어있다. 이는 후금과의 전쟁 장면을 그린 당대의 생생한 시각적 史料이며, 전쟁 회화의 한 예로서 주목된다. 이후 정조대인 1798년에 관련 자료를 망라한 『충렬록』 중간본이 간행되면서 판화도 다시 제작되었는데, 초간본 판화와는 다른 구성과 양식을 띠고 있어 흥미를 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충렬록』 초간본과 중간본의 판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김응하는 조선시대 후반기의 대표적 名臣으로 추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군사적 관점에서 그를 간략하게 소개한 글이 두어 편 있었을 뿐이며, 『충렬록』에 대해서는 근래 들어서야 문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시작되었다.³⁾

2) 1619년 3월에 벌어진 이 전투는 深河戰鬪 혹은 薩爾滸(사르후)전투라 불리며, 明·清 교체의 분수령이 되는 전투로 평가되고 있다. 심하전투에 대한 연구는 서정홍, 『明末 Sarhu(薩爾滸)戰과 그 性格』, 『安東史學』 제1권 1호(1994); 유지원, 『사르후(薩爾滸, Sarhu)戰鬪와 누르하치』, 『明清史研究』13, 명청사연구회, 2000, pp.149-165; 한명기, 『한국 역대 해외파병 사례 연구-1619년 『深河전투』 참전을 중심으로-』, 『軍事史 研究叢書』 제1집, 2001.

3) 김응하라는 인물상에 대해서는 군사적 관점에서 간략한 소개가 이루어진 바

『충렬록』 판화에 대해서도 정조대의 관판본 판화로서 重刊本 판화만이 소개되었을 뿐이다.⁴⁾ 그러나 중간본 판화는 17세기 초에 제작된 『충렬록』 초간본 판화를 근간으로 새롭게 제작되었던 것으로, 그 연구는 초간본과 중간본을 아우른 종합적 고찰이 되어야겠다. 먼저 심하전투의 경과와 김웅하의 활약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 『충렬록』의 간행과 판화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겠다. 『충렬록』 판화에 대한 이 연구는 조선시대 전쟁 기록화의 양상과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충렬록』 판화의 밑그림에 대한 회화사적 고찰로서 서지학적·판화사적 고찰과는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일러둔다.

2. 深河 전투와 金應河의 戰死

심하전투는 급속히 성장한 後金을 견제하기 위해 1618년 명이 후금의 근거지로 遠征하면서 일으킨 전쟁으로, 이 전투에서의 후금의 승리는 그들의 요동 진출의 발판이 되고, 실질적인 명·청 교체의 계기가 되었던 결정적 전쟁이었다. 명의 강요에 밀려 조선도 심하전투에 병력을 파견하여 참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징발하여 파병했던 병졸의 인원이 만명이 넘었던 조선시대 대외 파병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다.⁵⁾ 강홍립을 도원수, 김경서를 부

있다. 향토방위보사 編, 『김웅하 장군전』, 『향토방위』 2, 1970.4, pp.40-42; 향토방위보사 編, 『김웅하 장군전』, 『향토방위』 2, 1970.5, pp.22-27; 文熙男, 『後金征伐의 名將, 金應河』, 『호국』 123, 國防部, 1984.3, pp.102-105. 이 밖에 김웅하에 관련된 口傳 전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류인순, 『철원 지방 인물전설 연구 : 궁예, 김시습, 임거정, 김웅하, 홍·류시, 고진해를 중심으로』, 『江原文化研究』 8, 江原大學校江原文化研究所, 1988.12, pp.71-120. 『충렬록』에 대해서는 문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승수, 『深河 戰役과 金將軍傳』, 『韓國文學研究』 제26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3, pp.23-53; 任完嫻, 『明·清 交替期 朝鮮의 對應과 『忠烈錄』의 의미』, 『漢文學報』 제12집 (우리한 문화회, 2005. 6), pp.179-217.

4) 『충렬록』 중간본 판화에 대해서는 이해경, 『正祖時代 官版本 版畫 研究』(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p.58-63; 李惠敬, 『正祖時代 官版本 版畫 研究』, 『미술사연구』 20(2006), pp.252-253 참조.

深河戰鬪의 名將 金應河와 『忠烈錄』 판화

원수로 하여 과병된 조선군은 明軍 4개 대대 가운데 右翼南路軍에 소속되어 劉綎의 지휘를 받았다. 당시 조선군은 명군 지휘부의 강압으로 군량 보급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군하여야 했다. 조선군 전체가 압록강을 건넌 것이 1619년 2월 23일이었으며, 이어 앵아구(鶯兒溝: 2월 24일), 양마전(亮馬佃: 25일), 배동강(拜東江) 갈령채(葛嶺寨: 27일), 우모채(牛毛寨: 28일), 마가채(馬家寨: 3월 1일), 심하(深河: 3월 2일, 3일), 부차(富車: 4일)로 이어지는 행군로는 당시 명군이 4개 방향에서 전진하였던 행군로 가운데 지형적으로 가장 험준한 곳이었다.⁶⁾ 심하전투가 벌어졌던 지점은 <조선총람도>(도 1)에서 보면 조선의 평안도 창성에서 압록강을 건넌 곳이며, 18세기 전반의 지도인 <조선지도>(도 2) 중의 평안도 지도에 ‘무오년에 김응하가 死節한 곳(戊午金應河死節處)’이라 명기된 곳이다.⁷⁾ 조선군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기상 조건과 군량이 거의 고갈된 상황에서 말의 배까지 물이 차는 강을 4번이나 건너면서 행군하였다. 그들이 심하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은 이미 굶주리고 있었고, 근처의 여진족 부락을 뒤져 그들이 묻어 놓은 양곡을 파내어 죽을 쑤어 먹어야 하는 처지였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1619년 3월 4일 심하에서 조선군은 후금군의 기습을 받았다.⁸⁾

-
- 5) 15,500명이 징발되어 그 가운데 13,000명이 과병되었고, 그 중 8,000~9,000명 가량이 전사하여 과병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한다. 왕조실록에 근거한 이러한 수치는 한명기, 앞의 논문(2001), p.2.
 - 6) 심하전투의 현장 현황은 이승수, 『深河戰役의 현장 답사 연구』, 『韓國學論集』 제41집, 2007, pp.337-362 참조.
 - 7) 조선후기 지도 중에는 이처럼 김응하가 전사한 곳임을 명기한 지도가 다수 눈에 띈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김응하 장군을 추송하고 포양했지만 기실 그가 전사한 심하를 답사하거나 지리적으로 위치를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이고 “김응하 숭모가 관념 그 이상이 아니었다”고 피력한 앞선 연구도 있다.(이승수, 앞의 논문(2003), p.46. 그러나 고지도에 김응하의 전사지가 명기된 점을 보면 당시인들이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옳겠다.
 - 8) 한명기, 앞의 논문(2001), pp.19-20. 심하전투의 경과에 대한 문헌으로는 『광해군일기』 권138, 광해군 11년 3월 己未條; 李民奩의 『柵中日錄』(『紫巖集』 권5); 趙慶男의 『續雜錄』; 李肯翊의 『廢主光海朝故事本末』(『練藜室記述』 권21) 외 참조. 이민환의 『柵中日錄』은 1618년 4월 明의 徵兵에서부터 1620년 滿浦鎭에 도달하기까지의 일기인데, 참전당사자의 기록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도 1. <朝鮮總覽圖>, 17세기초, 지본채색, 131.7×65.6cm, 서울역사박물관



도 2. <조선지도 평안도>, 부분, 규장각 소장(古4709 77)

조선군은 명군의 뒤를 따라 부처에 도착하였는데, 명군은 미처 대오를 이루기도 전에 後金의 貴英介가 이끄는 철기병의 기습을 받아 거의 궤멸되었다. 이에 강홍립은 중영을 이끌고 행군로의 좌측 언덕으로 올라갔고, 김응하가 이끄는 좌영은 별판에 진을 치고 있다가 적의 기습을 받았다. 이때 김응하는 포수들에게 화포를 일시에 쏘게 하여 적군을 여러 차례 물리쳤다. 그러나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 연기와 먼지가 시야를 가리자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었고, 후금의 철기가 밀어닥치자 좌영군은 전멸하였다. 김응하는 버드나무에 의지해 활을 쏘며 끝까지 버티었고, 마침내 화살이 떨어지자 칼로 적을 쳤는데 결국 등 뒤에서 한 적병이 창을 던지자 땅에 엎어져 목숨이 끊어졌다. 명군이 전멸하고 조선 좌우영이 패하자 조선군 원수 강홍립은 후금에 투항을 하였다.⁹⁾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인 양면외교를 펼쳤던 광해군에게 있어 강홍립의 투항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던 후금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었고, 김응하의 죽음은 과병에 미온적이었던 조선에 대한 명나라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용가치가 있었다. 광해군은 혼란도감에 명하여 김응하를 추모하는 詩文集인 『충렬록』을 간행하여 배포하도록 하였고, 의주에 김응하의 사당을 건립하였다. 그의 사당을 유독 명의 使臣들이 왕래하는 길목인 의주에 세운 점은 김응하의 죽음이 지닌 정치성을 명백히 드러내 보여준다. 김응하에 대한 현창 사업을 통해 심하전투에서 조선군이 최선을 다해 싸웠고, 이후 온 나라가 그를 추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함으로써 강홍립의 항복에 명의 관심이 쏠리는 것을 막아보려 했던 것이다.¹⁰⁾ 김응하의 전사 소식은 명나라에도 효과적으로 전해졌던 듯, 명의 神宗은 이듬해에 김응하가 용전분투하다가 장렬한 죽음을 당한 데 대한 보답으로 특별히 조서를 내려 그를 遼東伯에 봉하였으며 그의 처자에게는 백금을 하사하였다.¹¹⁾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이에 근거한 기술적 외교정책으로 명의 요구에도 적당히 응하고 세력이 팽창되어 가던 後金과의 관계도 악화시키지 않는 중립적 대외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던 광해군에게 김응하의 전사는 매우 유용한 것이어서 이렇게 김응하에 대한 현창이

9) 明연합군(명·조선·여진족 葉赫)은 군대를 네 갈래로 나누어 후금의 본거지인 허투알라(赫圖阿拉, 奴城)를 협격하기로 하였으나, 후금의 군대는 3월1일부터 4일에 이르기까지 나흘에 걸쳐 세 군데에서 연합군을 차례차례 격파하였다. 이 전투에서 명나라는 5만에 가까운 군사를 잃고 국세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승수, 앞의 논문(2007), p.338.

10) 한명기, 위의 논문(2004), pp.48-49.

11) 『광해군일기』1621년 10월 25일조에 遼東伯 증봉을 위한 명나라의 조서를 받드는 일을 권진기 등에게 맡길 것을 아뢴 비변사의 요청이 있었다. 『충렬록』 초간본(1621년간)에 명나라에서 온 조서 내용이 수록되었고, 송시열은 철원 褒忠祠 김응하의 廟碑의 비문 「詔贈遼東伯金將軍廟碑」를 지었다. 그러나 조서의 문장이 졸렬하다는 이유로 요동백 증봉 사실 자체를 의심한 견해가 李穡에 의해 제기된 이래(『密菴集』) 논란이 계속되었다. 정조는 『重刊 忠烈錄』을 편찬하면서 중국 문헌의 고증을 통해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켰으나, 田愚(1841-1922)의 서간(長齋集 後編 권1, 答金元五)을 보면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편, 광해군과는 달리 대부분의 조정 신료들은 명과의 의리를 내세워 출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었다. 명과 조선의 관계를 父子의 관계로 보는 ‘父子之義’와 임진왜란 때 원병을 보내 조선을 구해주었다는 ‘再造之恩’의 보답을 절대적 도리로 여기며, 후금을 오랑캐로 깔보고 斥和로 일관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후금과의 전쟁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은 김응하의 죽음은 천자의 나라인 명을 섬기는 행위이며, 중원을 어지럽히는 오랑캐를 토벌하려는 의지의 연장선에서 받아들여졌다.¹²⁾ 김응하는 명분론과 尊周攘夷 의식의 표상이 되어 그들에게도 정치적 의미가 지대하였던 것이다.

현실인식에 토대한 실리적 필요에 의해서든 이상적 명분론에 근거하였든 김응하의 전사는 정치적으로 유용하여 그의 공적을 기리는 현양 작업은 당파를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행해졌으며, 광해군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3. 金應河 顯彰과 『충렬록』의 간행

김응하에 대한 국가적 褒彰은 철종대까지 지속되었으며, 고종대에도 그의 후손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음을 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명나라의 요청에 의해 출정하였던 파병 부대의 일개 장수로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거나 국가적 위기에서의 救國의 공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응하에 대한 국가적 현양은 매우 지속적이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김응하의 죽음이 대명의리론과 존주양이 의식의 표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먼저 광해군대의 김응하에 대한 현창 내용과 『충렬록』 간행의 의의를 살펴보면, 김응하는 전사 후 곧바로 병조판서, 이어서 영의정으로 贈職되었고, 그의 유족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승직·기용 등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표 1) 또한 김응하의 사당이 의주에 건립되었고 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12) 『충렬록』, 『충렬록서』, “崇獎之典無憾 而將軍之節益彰 將軍之節益著 而我國討賊之義 聖上事天之誠 益揭於天下後世 豈不臧哉.” 임완혁, 『明·淸 交替期 朝鮮의 對應과 『忠烈錄』의 의미』, 『漢文學報』제12집, 2005, p.191.

제사지내게 하는 致祭가 이루어졌다.¹³⁾ 또 1621년에는 명나라의 신종이 김응하를 ‘遼東伯’으로 봉작함에 따라 그 조서를 받들었던 일도 실록에 기록되었다.¹⁴⁾ 1621년 훈련도감에서 간행된 『충렬록』은 김응하의 傳記인 『김장군전』을 포함하여 그를 애도하는 여러 문사들의 輓詩, 그리고 심하전투에 참전했던 명나라 장수들과 전사한 將卒들을 추모하는 내용의 『祭劉都督文』, 『祭喬遊擊文』, 『戰亡將士賜祭祭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¹⁵⁾ 그 내용을 보면 오랑캐와 싸우다가 전사한 김응하의 용기와 의지를 상찬하고 그의 죽음이 명에 대해 지켜야 할 기본책무를 다하여 국가의 체면을 세워주었음에 큰 의미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후금군에게 투항한 姜弘立과 金景瑞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매도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는 李廷龜를 위시한 非北人系 학인들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었지만, 동시에 명의 의심과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어, 외교문제를 둘러싼 조선 조정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¹⁶⁾

이후 반정을 일으켜 즉위한 인조와 반정의 주도 세력들은 尊明의식이 투철하였고, 병자호란에 이어 三田渡의 치욕을 겪으면서 淸에 대한 울분과 복수를 다지게 되었다. 인조대 이후에는 김응하의 공적을 기리는 현창 사업은 對明義理論과 尊周論을 기본으로 한 국가적 정체성과 맞물리게 되었다. 존주론이란 천하가 무수한 小國으로 分立하여 쟁투하던 중국 고대의 春秋戰國시대에 天命을 받들어 정통성을 보유한 周나라만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혼란한 세상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남방오랑캐라 할 수 있는 倭와 북방 오랑캐인 여진에 의해 동아시아질서가 파괴된 당시의 상황은 천하대란으로 인식되었고 주나라와 같은 상정성을 가졌던 漢族의 정통국가인 명나라가 멸망하였다는 것은 중화문화질서의 붕

13) 『광해군일기』 1619년 3월19일; 3월21일; 4월26일; 5월6일; 5월18일; 6월21일; 1621년 10월4일; 10월22일; 1622년 7월14일 기사.

14) 『광해군일기』 1621년 10월25일 기사.

15) 이는 규장각 소장 『충렬록』(古貴923.55-G417c)에 수록된 내용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충렬록』(古 152-26)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충렬록』 간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비교는 각주 33) 참고.

16) 임완혁, 위의 논문, p.19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홈페이지 자료 검색; 『忠烈錄』(청구기호: 古貴 923.55-G417c)의 해제 참조.

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존주론은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론인 동시에 무너진 동아시아문화질서를 정신적으로나마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희생된 전사자나 충신·열사는 그러한 체제 수호에 공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그 현창 작업이 尊周論의 실천과 병행되어 행해졌다.¹⁷⁾

<표 1> 김응하에 대한 국가적 포창 내역

왕대	연일자	내 용	典據
광해군	1619. 3. 3	심하전투	
	1619. 3.12	평안감사 치계: 심하 전투 경과와 패배	광해군일기
	"	비변사, 공석이 된 수령의 후임 차출 청함.	광해군일기
	1619. 3.19	왕의 전교: 전사한 김응하를 증직하고 전사한 장수와 군사를 위해 賜祭하도록 명함.	광해군일기
	1619. 3.21	김응해 상소: 김응하의 동생 선전관 김응해에게 휴가와 말을 주어 선전에 있는 김응하의 가족을 데려오게 허락함.	광해군일기
	"	비변사, 돌아오는 장수 기다렸다가 치제하기를 청함.	광해군일기
	1619. 4. 8	양사 합계: 강홍립 등의 논죄 청하나 왕이 불허.	광해군일기
	1619. 4.26	비변사, 김응하의 장례를 위해 은전 지급을 청함.<후일> 판서로 추증하고 그의 자손을 녹용케 함. 제수를 하사함.	광해군일기
	1619. 5. 6	왕의 전교: 의주에 김응하를 위한 사당을 세우도록 명함.	광해군일기
	1619. 5. 9	김응해, 김응하의 장례 후 직임에 복귀 청함	광해군일기
	1619. 5.18	예조, 김응하 사당 건립의 계획 보고.	광해군일기
	1619. 5.27	비변사, 전사자를 모두 파악하여 홀전을 주도록 아뢰.	광해군일기
	1619. 6.21	김응하의 사당에 <忠烈>이라는 편액 하사함	광해군일기
	1619. 7.13	체찰 부사 장만, 전사자 파악하여 보고함.	광해군일기
	1620. 3.10	영의정 추증(『贈領議政致祭文』)	중간 총령록
	1621.10. 4	전교: 김응하의 아들 金益鍊에게 알성 전시에 直赴하게 함.	광해군일기

17) 정옥자, 『正祖代 對明義理論의 整理作業—<尊周彙編>을 中心으로—』, 『韓國學報』 제69집, 일지사, 1992, pp.77-88.

深河戰鬪의 名將 金應河와 『忠烈錄』 판화

광해군	1621.10.22	전교: 김응하의 가족에게 월봉을 넉넉히 지급하도록 함.	광해군일기
	1621.10.25	비변사, 김응하 '遼東伯' 증봉을 위한 명나라의 조서를 받드는 일을 권진기 등에게 맡길 것을 아뢰.	광해군일기
	1621.11~12	훈련도감에서 『충렬록』간행	연려실기술 별집 권9
	1622. 7.14	병조, 김응하의 아들 김익련을 승급시킬 것을 아뢰.	광해군일기
인조	1623. 7.12	왕의 하교: 김응하의 처자에게 은 3백냥을 내림.	인조실록
	1623.	왕의 하명: 김응하와 함께 전사한 이유길 증직토록 함 (이호민이 아뢰)	인조실록
	1636. 8.12	병자호란 때 의주의 김응하 사당 불탐.	인조실록
	1642. 4. 8	김응해 평안병사에 제수	인조실록
	1648. 5. 3	영의정 김자점, 김응하의 아들 김익련 사망 보고. 노모 이자 김응하의 부인에게 급료 지급할 것을 아뢰.(1622년까지 매달 지급되었으나, 1623년 이후 끊어졌음)	인조실록
효종	1657. 6. 7	민응형, 상소: 임금의 실정을 아뢰며 절의가 높은 신하들에 대한 포상. 후손의 녹용을 권함.	효종실록
현종	1661. 6.13	김응하의 손자 金世龜에게 관직 제수를 명함.	현종개수
	1666.	철원부 수령 김만균이 철원에 사당 짓고 위패 모심.	송자대전 권171
	1667. 6.14	철원에 있는 김응하의 묘호 '褒忠'을 내림.	현종개수
	1668. 2.	철원 褒忠祠 사액	중간 충렬록
	1669. 2.13	김만균, 김응하에게 시호를 내릴 것을 아뢰.	현종실록
	"	김만균, 김응하 祔宇 건립하였으나 시호가 없으므로 시호 내릴 것을 아뢰.	현종개수
	1669. 6.	김응하의 내외손 철원군수 金世龜·兵使 柳斐然이 豊碑(비석) 세움. 송시열 『詔贈遼東伯金將軍廟碑』 지음.	송자대전 권171
	1670. 8.23	김응하에게 '忠武'의 시호 내림.	현종실록
	"	김응하에게 '忠武'의 시호 내림.	현종개수
숙종	1680.12. 7	김응하와 함께 전사한 이유길에게 정표하고 추증함.	숙종실록
	1687. 2. 4	봉조하 송시열 상소 중에 김응하의 공적 언급.	숙종실록
	1695. 4. 2	시독관 이정겸, 김응하 사당에 사액 청하나 불허함.	숙종실록
	1695. 8. 1	창성 충렬사에 사액	중간 충렬록
	1697.	宣川 義烈祠 건설	중간 충렬록

영조	1733. 4. 7	김응하의 선천묘(廟)에 사액하고, 수리를 돌보도록 명함.	영조실록 중간 총렬록
	1735.	창성 총렬사에 賜祭	중간 총렬록
	1737.12.25	영의정, 다음해(1738년)가 무오년으로 전쟁이 있었던 해의 회갑이라 賜祭할 것을 아뢰. 왕이 戰亡日에 맞추어 近臣을 보내 치제케 함.	영조실록
	1739. 2. 8	승지를 보내어 김응하의 창성 총렬사에 치제케 함.(3월4일 치제)	영조실록 중간 총렬록
	1747. 9.21	함경도 유학들, 김응하 사당(北關 行營 結 소재)에 편액을 하사할 것을 진달하였으나 불허함.	영조실록
	1754.10. 2	김응하를 不祧의 신위로 삼음(예조판서 홍상한의 상달)	영조실록
정조	1787. 3.19	철원 포충사에 승지를 보내 치제케 하고 자손을 찾아 내어 보고하도록 명함. 김응하전을 여러번 읽었음을 밝힘.	정조실록
	1790. 3.19	황초에 대해 절의를 지킨 사람 장려, 收錄. 김응하 외 다수 褒獎하고 錄用.	정조실록
	1791. 1.25	예조, 김경서의 마을에 정문 세우고 시호 추증할 것을 아뢰.	정조실록
	1796. 9.15	김응하와 함께 전사한 정기남을 선천 의열사에 추후로 배향.	정조실록
	1797. 2.13	김응하와 함께 전사한 김철현을 포양할 것을 청함.	정조실록
	1797. 4.13	승지를 보내 김응하에게 치제케 함.	정조실록
	1798. 3.19	김응하의 봉사손 김택기에게 관직 제수함.	정조실록
	"	김응하에게 어제시를 내림. 포충사에 걸게 함.	정조실록
	1799. 2.19	김응하가 압록강을 건너 순절한 해인 기미년의 3주갑인 날임. 김응하의 묘에 승지를 보내 치제케 하고 봉사손 김택기를 사과에 부치고 특별로 收用함(과직되어 실무가 없는 관리를 재등용함).	정조실록
	1799. 2.23	김택기를 훈련원정(訓練院正)으로 추천하도록 함.	정조실록
	1799. 2.26	김응하에 대한 책을 간행토록 하고 관향을 요동 김씨로 함.(『重刊 忠烈錄』간행) 문헌 고증으로 요동백 증봉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킴.	정조실록
	1799. 2.30	절의를 지킨 김경서의 후손을 찾도록 명함	정조실록

深河戰鬪의 名將 金應河와 『忠烈錄』 판화

순조	1813. 2.25	영의정, 김응하와 함께 순절한 최영원을 병마 절도사를 추증하고 정려할 것을 아뢰.	순조실록
철종	1859. 2. 9	심하 전투의 舊甲이 돌아와 예관을 보내 치제케 함.	철종실록
고종	1871. 3.15	김응하의 사손 김일구의 아들 金東石 무과 급제.	고종실록

北伐論이라는 대청복수론과 尊周論을 주창하며 효종·현종·숙종 三代에 걸쳐 국가의 기본방향을 이끌었던 宋時烈이 임진왜란때 원병을 파병한 神宗과 명의 마지막 황제인 毅宗을 제사지내던 萬東廟, 뒤이어 숙종 때에 청설된 大報壇은 존주론을 구현하는 장치였다. 명의 황제를 제사지내면서 아울러 兩亂의 충신·열사를 配享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충신·열사들이 중화질서 수호자로도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¹⁸⁾

명나라의 후금 정벌에 참전하여 전사한 김응하는 오랑캐에 굴복하지 않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킨 인물로, 따라서 존주론을 실천한 인물로 숭앙되었다. 현종대에 송시열의 제자인 金萬均이 벌인 김응하 현창 활동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¹⁹⁾ 김만균은 김응하의 고향인 철원의 수령으로 부임하고 나서 1666년 그 곳에 김응하의 사당을 지었고, 그 사당에 ‘褒忠’이라는 廟號를 받아냈으며, 1670년에는 김응하에게 ‘忠武’의 시호가 내려지도록 만들었다.²⁰⁾ 1669년 그 사당에 廟碑를 세울 때 碑文을 송시열이 지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²¹⁾ 이 외에도 김응하의 연고지에 祠宇가 속속 지어져 昌城의 忠烈祠(1695년, 숙종 21년), 宣川의 義烈祠

18) 정옥자, 같은 논문, p.78. 충신 열사에 대한 현창작업과 대명리론에 대한 연구로는 이 외에도 이육, 『조선후기 전쟁의 기억과 大報壇 제향』, 『宗教研究』 42집, 2006, pp.127-163; 지두환, 『조선 병자호란 충신 열사에 대한 현창정책』, 『한국학논총』 34, 국민대학교 학국학연구소, 2010, pp.795-819 참조.

19) 金萬均(163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光山. 자는 正平, 호는 思休·醉仙·梨湖. 宋時烈의 문인이다.

20) 『현종개수실록』 1667년 6월14일; 1669년 2월13일; 1670년 8월23일; 『현종실록』1669년 2월13일; 1670년 8월23일.

21) 묘비는 김응하의 내외손인 철원군수 金世龜와 兵使 柳斐然에 의해 세워졌고, 이 때 송시열이 쓴 비문은 『詔贈遼東伯金將軍廟碑』이다. 『송자대전』 권171에 수록되었으며, 송시열이 찬한 김응하묘비 탁본이 蝴蝶裝의 첩 형식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奎 15164, 宋時烈 撰; 朴泰維 書; 金壽恒 篆)

(1697년, 숙종 23년)가 세워지고, 鍾城의 行營祠, 慶源의 忠烈祠가 더해졌는데, 이는 충신·열사들에 대한 현장사업이 개인 차원 혹은 국가 차원에서 계속되어 숙종대에 절정을 이루었던 祠宇 건설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²²⁾

김응하 현장 작업은 영조대에도 계속되어 영조는 선천에 있는 김응하의 사당에 사액하였고, 1738년은 무오년으로 전쟁이 있었던 해의 二回甲이라 특별히 近臣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였다. 1754년에는 김응하를 不祧의 신위로 삼은 점이 특기할 만하다. 不祧란 나라에 공훈이 있는 이의 신주를 영구히 사당에 봉안하고 享祀하게 하는 특전이다.

그러나 정조대에 이르러 이미 강대한 문화국가로 탈바꿈한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 낙후된 조선문화를 도약시켜 보려는 북학사상이 새로운 시대사상으로 제기되고 존주론의 시대적 당위성이 퇴색되자, 존주의식에 입각한 선왕들의 遺旨를 충실히 계승하고자 했던 정조는 존주론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을 행하며 春秋之義를 재천명하고자 하였다. 『尊周彙編』의 편찬으로 구현되는 이 작업은 대명 의리론과 대청복수론의 총정리 작업임과 동시에 충신·열사 숭모 사업의 결정판이었다. 그는 역대 충신과 의사를 다시 부각시켜 현장하고, 순절한 충열지사의 후손들을 모두 찾아 포장 祿恤하고자 하였다.²³⁾ 이러한 정책은 군왕의 정치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정조는 김응하에 대한 표창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정조가 표창한 대표적 무인 중 하나였다.²⁴⁾ 정조는 『金應河傳』을 여러 차례 읽으며 감명 받았음을 스스로 밝혔고, 철원의 김응하 사당에 승지를 보내 치제하게 하고 그의 후손을 찾아내도록 명하기도 하였다.²⁵⁾ 그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주목되

22) 朴珠, 『朝鮮肅宗朝의 祠宇濫設에 대한 考察』, 『韓國史論』6, 서울대 국사학과, 1980 참조.

23) 정옥자, 같은 논문, p.88-117.

24) 정조는 이 밖에 이순신, 임경업, 김덕령에 대해 적극 표창하였으며, 『이충무공전서』, 『임충민공실기』, 『김충장공유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으로서 공을 세웠으나 주목받지 못했던 梁大樸을 현장하고 『양대사마실기』의 간행을 명하기도 하였다. 안대회, 『梁大樸의 실기 양대사마실기』, 『정조대의 문헌 2: 정조의 시문집 편찬』, 문헌과 해석사, 2000, pp.250-261.

지 못했던 충신 절사들을 찾아내어 포장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는데, 김응하와 함께 심하전투에서 전사했던 鄭奇男·金哲賢 등 순절자에 대한 포장이 이루어졌다.²⁶⁾ 심하전투에서 강홍립과 함께 후금에 투항하여 오랫동안 비판을 받았던 부원수 김경서에 대해서도 그가 후금의 진영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내부 실정을 본국에 보고하다가 처형당했던 일이 재조명되면서 새롭게 평가되었다.²⁷⁾ 특히 1798년 무오년은 후금정벌에 참전한 지 三回甲, 곧 180년이 되는 해였으며, 김응하의 기일을 기해 3월 19일 정조는 김응하 사당인 褒忠祠로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제사 지내게 하고, 김응하의 祀孫인 金宅基에게는 과격적으로 벼슬이 올려졌으며, 손수 시를 지어 보내기도 하였다.²⁸⁾

1798년 심하전투 三回甲을 기해서 이루어진 중간본 간행은 김응하 현장 사업의 총결산이자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에 대한 정조의 대정리 작업의 일환이었다. 『중간 총렬록』에는 광해군대 이래 조정에서 시행된 김응하 추모 사업·포창내역 등이 편년식으로 기술되었고, 김응하 사당에 내려진 사제문, 병자호란 때 어영대장으로서 서방산성을 守死한 김응하의 동생 金應海의 碑誌·遺蹟과 김응하와 더불어 심하전투에서 순절한 여러 병사들의 기록이 추가되었다. 또 명의 신종황제가 그를 요동백으로 봉작함을 알리며 내린 조문, 그 밖의 『武備志』, 『名勝志』 등 명나라 기록과 『海東名臣錄』·『定齋集』·『月沙集』 등의 문헌기록 중의 김응하 관련 사실을 발췌하여 수록하는 등 김응하에 관련된 모든 기록이 망라되었다.

김응하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포상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철종 10년(1859)은 심하전투의 4周甲이 되어 예관을 보내 치제하게 하였고, 고종 8년인 1871년에는 김응하의 嗣孫인 김일구의 아들 金東石이 무과에 급제하자 조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정도로 김응하의 후손에 대한 관심이 컸다.

25) 『正祖實錄』 23권 11년(1787) 3월 19일(丁亥).

26) 『正祖實錄』 45권 20년(1796) 9월 15일(丁巳); 46권, 21년(1797) 2월13일(甲申); 『중간 총렬록』 권8, 附錄.

27) 『正祖實錄』 32권 15년(1791) 1월 25일(庚子).

28) 『正祖實錄』 48권 22년(1798) 3월 19일(계미).

김응하에 대한 현장 작업이 이처럼 尊周論에 입각한 국가적 사업과 맞물려 병행되었음을 알아보았는데, 사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아가 전사한 장수의 충렬을 기리고 현장하는 일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권장하고 장려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이다. 김응하의 죽음은 뒤이은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치욕과 연계되어 남다른 의미를 지녔던 데다가 국가적 현장 작업이 이어졌던 만큼 민간에서도 두고두고 기억되고 膾炙되었으며,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그의 충렬을 숭모한 수많은 詩文이 지어졌고, 그와 관련된 연고지를 지나는 길손들의 기행문에서 기려졌다.²⁹⁾ 그의 전기를 담은 金應河傳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전해져서 朴希賢, 洪翼漢, 朴栽, 洪世泰, 金堉, 洪良浩, 李泰壽 등이 지은 傳이 전해졌으며, 『東野彙輯』, 『歷代類編』과 같은 야담집에도 김응하의 이야기가 전승되었다.³⁰⁾ 숙종대의 문신인 박태보는 1677년 선천에 귀양 갔을 때 그 곳의 父老들이 이미 一甲子가 지난 일임에도 오직 김응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음을 놀라워하였는데,³¹⁾ 김응하의 고향인 철원에는 지금까지도 김응하에 관련된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음이 근래에 보고되어, 김응하 이야기의 끈질긴 생명력을 실감케 한다.³²⁾

이상 살펴보았듯이 김응하에 대한 현장 작업은 官民 모두에서 조선시대 후반기 내내 이루어졌다. 김응하 사당의 건립과 치제, 유족 혹은 후손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관직에 있어서의 혜택 제공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적 주도의 『충렬록』 간행과 이어 重刊本 편찬이 행해졌다. 김응

29) 김응하에 관련된 傳·詩文·서간 등은 <부록> 참조.

30) 「김응하전」에 대한 문학적 고찰은 이승수(2003), pp.23-53; 任完嫻(2005), pp.179-217 참조.

31) 朴泰輔, 『定齋集』, 『書金將軍逸事』, “丁巳冬 泰輔以罪謫宣川 羈囚邑邑 數從府之父老游 往往問府之故事 其父老不能言他事 唯屢誦金應河事 應河以己未歲戰死 迄茲丁巳戊午之間 甲子已一周矣 其民猶斷斷不忘 以傳應河之事 固未易忘也.”

32) 柳仁順, 『鐵原地方 人物傳說 研究—弓裔, 金時習, 林巨正, 金應河, 洪·柳氏, 高진해를 中心으로—』, 『江原文化研究』8,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88.12, pp.71-119; 『강원도 철원군 구비문학 현지조사 보고서』, 『국어국문학논문집』17집,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하에 대한 이 같은 현창사업은 대명의리론과 존주의식과 맞물린 것으로 17세기 이후 조선의 정체성을 대변하게 되었다. 즉,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무너진 동아시아문화질서를 정신적으로나마 유지하려는 의도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희생된 전사자나 충신·열사에 대한 현창 작업이 지속적으로 행해졌는데, 이는 그들이 체제 수호에 공이 있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병자호란 패배와 삼전도의 치욕 이후 대청복수론이 고개를 들면서 이에 앞서 심하전투에서 死節한 김응하의 존재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심하전투에서의 김응하의 戰死를 애도하기 위해 간행된 『충렬록』 초간본은 애초에 조선이 명나라에 원병을 보내는데 소극적이었고 심하전투에서 명군이 궤멸된 가운데 강홍립의 조선파병군이 後金에 투항을 하게 된 데에 대한 변명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중간 충렬록』의 편찬은 존주론의 실천과 병행되어 행해졌던 조선후기의 김응하 현창 작업에 대한 총결산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이처럼 간행 시기의 간격만큼이나 제작 배경도 상이하였던 『충렬록』 초간본과 중간본의 판화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다.

4. 『충렬록』 판화의 내용과 특징

본 연구에서는 『충렬록』 판화의 내용과 특징을 광해군대에 간행된 초간본 판화와 정조대의 중간본 판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충렬록』 판화의 밑그림에 대한 회화사적 고찰로서, 여기서 ‘초간본 판화,’ ‘중간본 판화’라 칭한 것은 그 밑그림을 말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³³⁾

33) 규장각 소장의 『金將軍傳』(奎12020), 『충렬록』(古貴923.55-G417c)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충렬록』(古152-26), 경상대학교 소장 『충렬록』(B9J-박58次) 등은 각 소장처의 서지사항에 1621년 광해군대에 간행된 古書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은 목차가 일부 서로 바뀌었거나 누락 혹은 더해진 글이 있기는 하지만 초간본이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규장각 소장의 『충렬록』(古貴923.55-G417c)은 판화가 누락되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 밑그림의 판화가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金將軍傳』(奎12020)의 경우는 판화의 묘사가

1. 『충렬록』 초간본 판화의 구성과 내용

『충렬록』 初刊本 판화는 김응하의 전사 장면과 처참했던 후금과의 전투 상황을 실감나게 재현한 시각 정보이다. 김응하의 초상을 판각한 <金將軍遺像>에 이어 심하전투에서의 김응하의 활약을 네 장면으로 보여주었다. (표 2) 먼저 1619년 3월4일 富車嶺에서 전열을 갖추고 후금군과 맞섰던 김응하의 좌영군을 그린 <遇賊擺陣圖>(표2-2)이다. 당시 명나라 유격 喬一琦가 군사를 거느리고 선두에 행군하였고, 도독 劉縉이 그 뒤를 이었으며, 뒤이어 조선의 좌·우영이 전진하였고, 중영이 마지막으로 행군하였다. 앞장서 가던 교유격의 군은 부차령에서 산골짜기에 잠복하고 있던 후금군의 공격을 받아 전군이 패하였으며, 교유격만이 겨우 피하였다.

뒤따르던 유도독은 선봉 군대가 불리한 것을 보고 전진하였으나 역시 전군이 다 죽었고, 도독 이하 장수들은 화약포 위에 앉아서 불을 질러 자살하였다고 한다.³⁴⁾ <우적파진도>는 조선 좌영을 이끈 김응하가 그 뒤를 이어 전진하여 들판에 포진한 장면을 그린 것이다. 김응하는 말을 막기 위한 장치인 거마목을 진 앞에 둘러 쳐서 적의 騎兵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부대를 나누어 화포를 일시에 쏘게 하며 대항하였다. 조선군은 임진왜란을 겪으며 화포병을 양성하여 이 방면에서 전력이 중국에 앞서 있었다.³⁵⁾ 앞

더 섬세하고 판각이 정교하여 국립중앙도서관본과 경상대학교 본과 차이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과 경상대학교본은 각선이 더 거칠고 각이 찼으며, 형태가 왜해된 듯한 점이 눈에 띄어 광해군대 이후의 판각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충렬록』은 광해군 13년(1621) 훈련도감에서 최초로 간행되었고, 숙종 4년(1678) 金海府에서 再刊, 영조 47년(1771)에 三刊되었으며, 이어 1798년에 重刊되었다고 『중간 충렬록』의 말미에 수록된 成大中(1732-1809)의 발문에 기록되었다. 본 논문의 부록에 필자가 작성한 표에서 보듯 『충렬록』은 조선시대 내내 광범위하게 읽혔다. 위 간행 사항 외에도 여러 차례의 再刷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현존 판본 가운데는 규장각 소장 of 『金將軍傳』(奎12020) 판화가 1621년 간행의 원형에 가깝다고 생각되지만, 이들 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은 미루어두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들 판화의 밑그림에 대한 회화사적 고찰이므로, 이들 판화를 아울러 ‘충렬록 초간본 판화’로 취급할 것이다. 단, 가장 원형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김장군전』(奎12020) 판화의 이미지를 사용해 설명을 전개하고자 한다.

34) 『光海君日記』卷138, 11年(1619), 3月 乙未(12일).

서 조선군 中營으로 피해 왔던 유격 喬一琦는 언덕 위에서 김응하의 전투 상황을 보고 ‘평원역지(平原易地)로다’라고 감탄하며 “겨우 몇 천의 보졸로 능히 수만 철기를 당해내니 好利兵이라 이를 만하다.”라고 감탄한 것으로 알려졌다.³⁶⁾

전투 상황을 그린 이 판화를 보면 오른쪽 면에는 조선군이, 왼쪽 면에는 적군인 후금군을 배치하였으며, 책의 접절부를 경계로 서로 대치한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오른쪽 화면의 중앙에는 김응하 장군이 말을 타고 병사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주위에 ㄷ자 모양의 깃발이 세워놓은 장치는 기병의 공격을 막기 위한 ‘거마목’으로서, 이 그림이 전투 상황을 전한 기록에 충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깨에 총대를 맨 포수들과 장검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묘사되어 당시 조선군의 병력 구성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왼쪽 면에 배치된 후금군은 모두 갑옷을 입고 말을 탄 기병으로 전력의 차이가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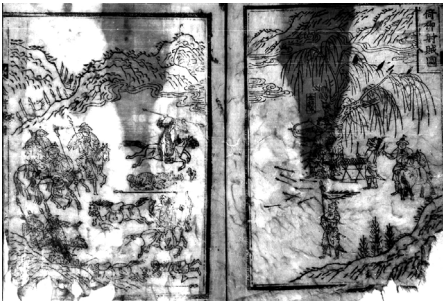
실제로 김응하는 불과 3천의 병력으로 6만의 기병을 대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후금군은 明軍을 大破한 후 승세를 타고 있었다. 화포를 쏘며 대적한 김응하의 작전으로 몇 차례 적군의 공격을 물리칠 수는 있었지만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레 하늘을 가릴 정도의 큰 모래바람이 일자 조선군은 더 이상 총을 장전할 수 없었고, 김응하의 좌영은 곧 무너지고 전멸하였다.




<의류사적도>(표2-3)는 김응하가 버드나무에 기대어 최후의 일각까지 버티며 적군을 물리친 마지막 순간을 그린 그림이다. 김응하의 투지와 용기는 후금군에게도 큰 인상을 남겨, 그들이 그를 ‘倚柳將軍’ 혹은 ‘柳下將軍’ 곧 버드나무에 기대는 혹은 버드나무 아래의 장군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오른쪽 면 중앙에 큰 버드나무 아래에 활을 겨누고 있는 김응하의 모습이 그려졌다.

35) 盧永九, 『壬辰倭亂 이후 戰法の 추이와 武藝書의 간행』, 『韓國文化』, 27, 2001, pp.147-176.

36) 李裁(1657~1730), 『密菴集』 권16, 『金將軍應河傳』, “...時喬遊擊以數十騎奔中營 欲與之共事 望見應河督戰狀 歎曰平原易地 以僅千步卒 能支數萬鐵騎 可謂好利兵...”

표 2 『충렬록』 초간본 판화의 구성(규장각, 奎12020)

제 목	판 화
<p>2-1 김장군 유상</p>	
<p>金應河 장군의 초상(15.9×22.8cm)</p>	
<p>2-2 遇賊擺 陣圖</p>	
<p>1619년 3월4일 富車嶺에서 後金軍의 공격을 맞아 陣을 벌이다 (좌:16×22.8cm, 우:16×22.8cm)</p>	
<p>2-3 倚柳射 賊圖</p>	
<p>버드나무에 의지해 적군을 쏘다 (좌:16.1×22.5cm, 우:16×22.6cm)</p>	

제 목	판 화
<p>2-4 死後握 劔圖</p>	
	<p>죽어서도 검을 쥐고 놓지 않다 (좌:15.8×22.5cm, 우:15.8×22.4cm)</p>
<p>2-5 兩帥投 降圖</p>	
	<p>강홍립·김경서가 후금의 누루하치에게 항복하다 (좌:15.8×22.5cm, 우:15.8×22.5cm)</p>
<p>2-6 龍灣祠 宇圖</p>	
	<p>1619년 용만(의주)에 세워진 김응하의 사당(우:15.5×22.6cm)</p>

김응하 옆에서 화살을 건네주고 있는 인물은 김응하와 함께 버드나무 아래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金鐵賢이라 여겨지며, 그 앞에 軍旗를 들고 선 인물은 旗鼓官 都德福이다.³⁷⁾ 김응하가 쏜 화살은 한 발에 적군 여럿을 맞추어 적의 시체가 쌓였으며, 마침내 화살이 다하자 칼로 적을 치니 적군들이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왼쪽 면에 창이나 활을 들고 공격하는 기병들과, 김응하의 활을 맞고 죽은 병사들이 보인다. 후면에 서 있는 후금군은 김응하의 막강한 기세에 감히 다가가지 못한 병사들이다. 김응하가 쏜 화살도 많았지만 적병이 김응하를 향해 쏜 화살은 더욱 많아서 기록에 의하면 김응하의 갑옷에 수많은 화살이 꽂혀 마치 고슴도치 같았음이 언급되었다. 원경을 이루는 산 능선을 따라 軍旗와 창이 늘어선 모습이 묘사되었는데, 이는 수만에 달했던 후금군 병력의 크기를 암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력을 다해 맞서던 김응하는 한 적병이 그의 등 뒤로 돌아간 창에 맞아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칼자루를 놓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 후금의 병사들이 그가 죽은 후에도 감히 다가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사후약검도>(표2-4)는 김응하가 죽어서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또 죽은 김응하 옆에 서서 김응하를 가리고 있는 인물은 胡人들이 “조선에 만약 이 같은 사람이 몇 명만 더 있었다라도 우리가 대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는 『김장군전』 중의 내용을 연상시키기 위해 그린 것이다.³⁸⁾ 보통 위인전에서는 전장에서의 용맹성과 신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편으로 적으로부터의 칭송이나 인정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인데,³⁹⁾ 『김장군전』에 입각하여 그려진 판화에서 이를 충실히 시

37) 김철현은 김응하의 통인으로서 마지막까지 김응하의 곁에서 화살을 빼어 건네주다가 함께 전사하였다. 朴泰輔, 『定齋集』 권4, 『書金將軍逸事』. 이 외에도 김응하와 함께 전사한 병사들의 이름이 알려졌다. 이들은 左營千總 金佐龍, 旗鼓官 正兵 都德福, 전 만호 吳稷, 출신 金堯卿, 초관 任委卿, 평양 풀신 崔應海, 운산 군수 李繼宗이다. 『光海君日記』卷142, 11年(1619) 6月 壬申(21日). 『충렬록』초간본(古이152-26) 중의 李爾瞻의 서문에도 “執幟一人 奉矢一人 冒鎗當鋒而投命者 不忍去也”라 기록되었다.

38) 『충렬록』, 『김장군전』, “其後胡人相言柳下一將最雄勇善射朝鮮若更有此輩數人不可敵也云.”

각화시킨 것이다. 이는 강홍립이 제대로 싸웠다면 조선이 심하전투를 이길 수도 있었다는 비현실적인 역사의 가정을 고착시키고, 이에 따른 안타까움을 후대에 전승시켰다. 한편, 김응하 곁에는 그와 함께 끝까지 싸우다가 함께 전사한 병사들의 모습이 그려졌다.⁴⁰⁾

<양수투항도>(표2-5)는 明軍과 조선의 좌우영 패배 이후 원수 강홍립과 부원수 김경서가 후금군에게 투항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오른쪽 면에 강홍립과 김경서, 그리고 조선군 군사들이 무릎을 꿇은 모습이 묘사되었다. 그들 뒤로는 벗어던진 갑옷이 쌓여있다. 왼쪽 면에 자리한 후금군은 賊將을 중심으로 도열하였다. 왼쪽 화면에 갑옷을 벗은 채 적장을 향해 앉아 있는 사람은 양측의 화의를 성사시킨 통역 河世國인 것으로 여겨진다.

<용만사우도>(표2-6)는 1619년 용만, 곧 의주에 건립된 김응하의 사당을 그린 것이다. 광해군은 김응하의 순절 직후 사당을 세우도록 명하였고, 그해 6월 21일에 ‘忠烈’이라는 편액이 하사되었다.⁴¹⁾

2. 『중간 총렬록』 판화의 구성과 내용

『중간 총렬록』은 심하전투로부터 180년이 된 1798년 三周甲을 기념하여 정조의 명에 의해 간행되었다. 중간본 편찬 때 판화도 새로 제작되었는데 그 밑그림은 도화서 화원인 金厚臣이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역서화징』 김후신조에서 오세창은 『중간 총렬록』을 인용하여 이 내용을 기록하였다.⁴²⁾ 초간본 판화를 단순히 복각하는 대신 도화서 화원에게 의뢰하여 완

39) 이승수, 앞의 논문(2003), p.42.

40) 김응하와 함께 전사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일부 포상이 이루어졌고, 후손들에 의해 현양이 이루어졌다. 『光海君日記』 권140, 11년(1619), 5월 己酉(27일); 권142, 11년(1619), 7월 甲午(13일); 『인조실록』 권2, 1년(1623), 8월 庚午(12일);

41) 『광해군일기』 권140, 11년(1619), 5월 戊子(6일); 권140, 11년(1619), 5월 庚子(18일); 권141, 11년(1619), 6월 壬申(21일).

42) 오세창편, 『국역 근역서화징』하, 시공사, 1998, p.769. 그런데 안타깝게도 필자는 『중간 총렬록』에서 김후신의 이름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考究해 보고자 한다.

전히 새로 제작한 데는 당시 편찬자들이 관화라는 시각매체의 효과와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중간 충렬록』에는 관화에 대해 “대개 힘써 싸우고 死緩(군대가 퇴각하면 장군이 그 책임을 지고 죽는 것을 말한다)한 모습을 그린 것이 마치 눈앞에 보듯 뚜렷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며, 감동하여 분발하고, 팔뚝에 불끈 힘을 주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게 하는 데는 그림이 또한 돕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충렬록』 관화가 독자들의 정서를 쉽게 자극하고 호소력도 강한 점을 염두에 두고 “옛 본에 근거하여” 책머리에 다시 그림을 수록하게 된 점을 피력하였다.⁴³⁾ 강홍립이 자신이 투항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고 크게 낙심했다는 글이 후대에 전해지게 된 것도 관화의 강한 매체적 특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⁴⁾ 또한 『충렬록』 초간본 관화를 보고 받은 감흥을 시로 남긴 사례를 살필 수 있는데, 17세기~18세기 초에 활동한 李時省이 <金將軍戰死圖>를 보고 지은 시와 李震白이 <倚柳射胡圖>를 보고 쓴 시가 그것이다.⁴⁵⁾ 정조의 아낌을 받았던 대학자이자 서화에 조예가 깊었던 정약용도 『충렬록』 관화에서 큰 감동을 받았던 듯 『題金營將深河射敵圖』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렇듯 세 사람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심어준 그림은 김용하가 버드나무에 의지해 사력을 다해 활을 쏘다가 절명한 최후

43) 『重刊 忠烈錄』, 『忠烈錄圖』, “...蓋所以模寫力戰死緩之蹟瞭然如日擊而使人想像感奮扼腕流涕自不能已者圖亦不爲無助故因舊置之卷首...”

44) 李健(1614~1662), 『葵窓遺稿』 권12, 『姜虜傳』(有諺文傳世者 公譯之), “又有以忠烈錄來示者 弘立見金將軍傳後敍 讀至韓延年戰死 李校尉偷生 乃長歎曰 不亦甚哉 其書又圖金應河獨戰死節 弘立與慶瑞屈膝於胡將之前 俯伏哀乞 其傍收聚軍器如山之像 弘立見之 不覺掩卷 面色如土曰 人之罪我至此 吾不堪其愧而死也 仍流落鄉村 杜門不出.”; 洪世泰(1653~1725), 『柳下集』 권9, 『金將軍傳』, “人有畫應河倚柳射賊 弘立等面縛降虜狀 以示弘立 弘立見之 恚愧而死.” 이승수, 앞의 논문(2003), p.39 재인용. 이 내용은 俞漢雋(1732~1811), 『自著』 권14, 『姜弘立傳』, “又見忠烈錄畫金應河力戰死節 弘立景瑞在旁屈膝狀 嘆曰 吾其愧死矣.”에서도 반복 수록되었다.

45) 李時省(?-?), 『騏峯集』 권1, 『金將軍戰死圖』, “千尺深河萬仞山 祗應沙磧血痕斑 廟堂爭獻和戎策 何事將軍戰不還.”; 李震白(1622~1707), 『西巖遺稿』 卷上, 『題忠烈錄金將軍倚柳射胡圖』, “想像將軍運氣機 大弓長劍奮神威 寧龍劈海驚濤立 怒虎爬山碎石飛 萬古聲名懸日月 三韓天地揭光輝 分明毅魄重泉下 應與張巡許遠歸.”

深河戰鬪의 名將 金應河와 『忠烈錄』 판화

를 그린 장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정약용의 시를 통해 문사들이 그 그림에서 보고 느낀 바를 엿볼 수 있다.

川邊獨樹寒無枝 강변의 우뚝한 나무 가지 없이 스산한데
 彼何男子來倚之 저 남자 누구이뇨 찾아와서 의지했네
 金盔鐵甲半欹倒 쇠투구에 철갑 차림 쓰러질 듯한 몸으로
 隻箭單弓猶射誰 활 하나에 화살 하나 오히려 뉘를 쏘는지

五營塵色低不起 오영 먼지 가라앉아 일어나지 아니하고
 鐵騎齊飲深河水 철기들은 일제히 심하의 물만 마시네
 上將投降三士從 상장이 투항하자 세 사람이 뒤따르고
 塞天漠漠君獨死 아스라한 변방 하늘 당신 홀로 죽어갔네

李陵埋旗受媒藥 이릉은 깃발 묻고 규탄을 받았는데
 此辱千載無人雪 이 치욕을 천고에 씻은 사람 없었네
 君曾讀史發憤罵 임은 역사 읽을 당시 분개하여 꾸짖으며
 誓爲英雄謝饒舌 영웅 위에 잡다한 말 불식하러 맹세했네⁴⁶⁾

정약용이 명시한 <심하사적도>라는 그림의 제목은 『중간 충렬록』에는 없고, 첫 절구에서 묘사한 그림 내용에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활을 쏘는 김응하를 언급하고 있어, 이 때 정약용이 보았던 그림은 『충렬록』 초간본의 판화였던 것으로 여겨진다.⁴⁷⁾ 이렇듯 초간본에 수록된 판화는 「김응하전」이라는 이야기와 아울러 시각적 이미지로서 강한 호소력을 지녔으며, 정조 연간 『중간 충렬록』의 간행 때에는 판화가 다시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중간 충렬록』 책머리에 배치된 김응하의 초상화인 <金忠武公遺像>은 초간본의 초상화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다. 이는 “오른쪽 초상화는 前後

46) 丁若鏞(1762~1836), 『茶山詩文集』 권1, 「題金營將深河射敵圖-金將軍應河」. 번역은 『(國譯)茶山詩文集』, 民族文化推進會, 1982-1994.

47) 『중간 충렬록』에는 김응하가 활을 쏘는 장면은 묘사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하는 그림은 <矢盡劒擊圖>인데 이 그림에서는 화살이 다 떨어져 검으로 적에게 맞섰던 김응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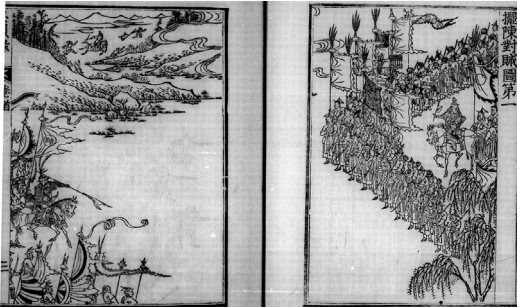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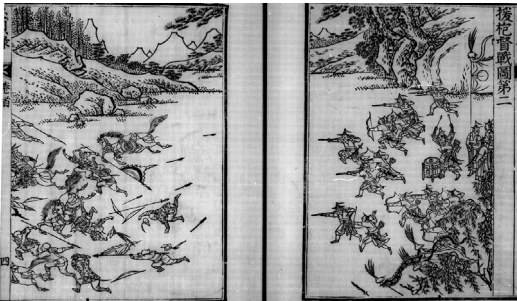
세 분이 있는데 신유본(1621년)이 옛 날로부터 멀지 않아 가장 근사하므로 중간본에 모사한다.”라고 초상화 뒤에 附記한 바를 통해서 알 수 있다.⁴⁸⁾ 따라서 17세기 공신상의 양식 특징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연히 18세기 말의 초상화와는 구분된다. 이어진 충렬록 판화에 대한 서문에는 그림의 구성을 초간본과 달리하게 된 내용이 밝혀져 있다. “제2도를 援柩督戰, 제3도를 矢盡劒擊으로 고친다. 이렇게 하여 그림의 상세함과 간략함에 순서가 있게 되고, [矢盡]劒擊 한 그림이 또한 舊本의 두 그림을 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여 초간본 판화 중의 김응하 최후의 장면인 <의류사적도>와 <사후약검도>를 각각 <원와독전도>와 <시진검격도>로 바꾸었음을 명시하였다.⁴⁹⁾ 이렇게 하여 김응하가 후금군의 공격을 받아 진을 치고 싸움을 독려했던 장면을 두 장면으로 늘였고, 戰死 장면을 하나로 줄여, 그의 善戰했던 공과를 더욱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8) 『重刊 忠烈錄』, 『金忠武公遺像』, “右遺像前後三本而辛酉本去古不遠最爲近似故模寫重刊.”

49) 『重刊 忠烈錄』, 『忠烈錄圖』, “如是以後圖之詳略有序而劒擊一圖又可以兼舊本二圖之意也.”

深河戰鬪의 名將 金應河와 『忠烈錄』 판화

표 3 『충렬록』 중간본 판화의 구성(규장각 奎1320)

제목	판화
<p>3-1 忠武公 遺像</p>	
<p>김응하의 초상(15.0×21.8cm)</p>	
<p>3-2 擺陳對 賊圖</p>	
<p>진을 벌여 적에 대응하다(좌:15.3×21cm, 우:13.8×21.5cm)</p>	
<p>3-3 援柅督 戰圖</p>	
<p>북을 치며 병사들을 독려하다(좌:15.2×21cm, 우:13.8×21.2cm)</p>	

제목	판화
3-4 矢盡劍 擊圖	
	화살이 다하자 검으로 싸우다(좌150×21cm 우135×21.1cm)
3-5 兩帥投 降圖	
	강홍립과 김경서가 투항하다(좌151×21cm 우138×21.0cm)

중간본 판화에서도 오른쪽 면에는 조선군이 왼쪽 면에는 후금군이 그려져 양 면에서 서로 마주보며 대적하는 형세를 취하여 기본적으로 초간본 판화의 틀을 견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파진대적도>(표3-2)는 김응하가 진을 치고 병사들을 나누어 화포를 일시에 쏘게 한 작전을 묘사하였는데, 두 줄로 질서정연하게 대오를 이룬 조선군 병사들이 화면의 중앙부에서 날카로운 예각을 이루고 軍旗를 휘날리는 모습에서 삼엄한 기세와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김응하는 말을 탄 채 후면에서 지휘하고 있다. 왼쪽 면에는 후금군이 대치하고 있는데 말을 탄 장수와 병졸 몇 명만이 좌측 하단에

살짝 내비치는 정도로 묘사되어 대조를 이룬다. 양군이 마주한 모습이凹凸의 형세를 이루며, 조선군의 결연한 공격력을 암시하였다. 한편, 원경의 언덕 너머에 말을 타고 달리는 인물과 軍旗를 내린 채 뛰고 있는 인물들은 김응하에 앞서 전멸한 明軍 혹은 김응하의 좌영을 도우러 왔다가 달아난 우영장 李一元과 병사들이므로 여겨진다.

<원와독전도>(표3-3)는 김응하가 복채를 잡고 북을 치며 병사들을 독려하였다는 기록을 묘사한 것이다. 초간본에는 없던 이 장면은 김응하장군과 병사들이 사력을 다해 싸웠던 투지와 치열했던 전투의 상황을 보여준다. 김응하는 두 손에 복채를 들고 힘껏 내리치기 위해 두 팔을 치켜들고 있다. 그의 주위에는 저마다 화포 혹은 활을 들고 공격하는 조선 병사들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묘사되었다. 김응하군의 맹공격에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후금군이 왼쪽 면에 그려졌다. 그러나 병력의 열세에 때마침 불어 닥친 모래바람으로 인해 김응하 군은 화포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때를 놓치지 않고 후금군이 맹공격하여 김응하 군은 전멸하였고, 김응하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끝까지 버티었으나 마침내 순절하고 말았다.

<시진검격도>(표3-4)를 보면 오른쪽 면에 버드나무 아래에 갑옷을 입은 김응하가 화살이 다 떨어지자 검을 들고 공격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의 곁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김응하와 함께 하며 화살을 건네주던 김철현과 軍旗를 들고 버티던 旗鼓官의 모습이 보인다. 김응하의 기세에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후금군의 모습이 그려졌으며, 왼쪽 면에는 근경에 살짝 가렸으나 창검이 즐비하게 늘어선 모습이 그려져 수만에 달했던 후금군의 대병력을 나타내었다.

<양수투항도>(표3-5)는 강홍립과 김경서가 후금의 누루하치에게 무릎 꿇고 항복하는 장면이다. 『중간 총렬록』에는 초간본에 있었던 <용만사우도>가 생략되었는데, 그것은 “지금은 사당이 훼손되었고, 이 외에 철원, 선천, 창성, 종성, 경원 여러 곳에 사우가 있으니 모두 그럴 수 없어 생략한다.”고 하여 <용만사우도>가 누락된 이유를 밝혔다.⁵⁰⁾

50) 『重刊 忠烈錄』, 『忠烈錄圖』, “四圖下舊有龍灣祠宇圖而今則祠毀矣別有鐵原宣川昌城鍾城慶源諸處祠宇不可并爲圖故闕之.”

이상 『충렬록』 초간본과 중간본 판화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초간본의 경우 명과 후금과의 대외관계에서 중립 양단의교를 펼치던 광해군이 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하전투에서 후금에 대항하여 사투를 벌이다 전사한 김응하의 죽음을 내세워 명에 대해 의리를 다한 조선군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간행되었던 만큼 판화의 구성에서도 김응하의 전사 장면이 <의류사적도>와 <사후악검도>의 두 점을 차지했다. 반면에 중간본에서는 명나라 멸망후 여러 대에 걸쳐 명분론과 존주론을 토대로 지속되었던 김응하에 대한 현장 작업의 충정리라는 성격을 지녔던 만큼 김응하의 전사 장면은 <시진검격도> 한 점으로 축약되고 대신 김응하가 심하전투에서 오랑캐에 대항하여 善戰했던 모습을 <파진대적도>와 <원와독전도>의 두 폭으로 늘림으로서 오랑캐에 대항한 조선의 자존심을 부각시킨 점이 눈에 띈다.

3. 『충렬록』 판화의 양식과 특징

『충렬록』 초간본의 序跋文을 보면 김응하의 죽음은 당나라의 장수 張巡·許遠과 송나라의 岳飛에 비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순·허원은 명나라 황제가 김응하를 요동백으로 봉하면서 “장순과 허원이 죽지 않았더라면 仙李에게 신하가 없었을 것이요 문천상이 죽지 않았더라면 屬猪에게 신하가 없었을 것이며, 장군이 죽지 않았던들 과인에게 신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한 데서 언급이 되었고, 『충렬록』 초간본의 말미에 수록된 韓纘男의 발문에서도 장순·허원의 순절과 악비의 충절을 김응하에 비교하였다.⁵¹⁾ 朴承宗이 지은 『進忠烈錄箋』에는 실제로 『충렬록』이 악비의 충절을 기린 『정충록』을 참고하여 편찬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김응하를 애도한 詩文이나 『충렬록』을 보고 감흥을 읊은 글 속에도 이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李敬

51) 『重刊 忠烈錄』, 『贈遼東伯詔』, “巡遠不死 仙李無臣 天祥不死 屬猪無臣 將軍不死 寡人無臣”; 韓纘男, 『跋文』, 『충렬록』, “張巡許遠得之飲血裹瘡而死於唐武穆得之背涅四字而忠於宋…” 張巡과 許遠은 唐末 安祿山の 난이 일어났을 때 睢陽城을 死守하면서 賊將 尹子琦와 전투를 벌인 장수로서 구원병이 오지 않는 가운데 몇 달 동안 악전고투하다가 함락되어 적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舊唐書』 卷187)

深河戰鬪의 名將 金應河와 『忠烈錄』 판화

興 또한 “『충렬록』이 『정충록』과 더불어 나란히 세상에 전해진다”라고 썼다.⁵²⁾ 김응하의 충절은 악비, 장순·허원, 문천상 등 중국의 명신에 비견되며 기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선조연간에 명나라로부터 전래된 『정충록』을 모델로 하여 편찬되었던 것이다. 『精忠錄』은 가정연간(1522-1566)에 출간되었던 중국의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을 일컫는 것으로, 1126년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수도 開封을 점령하고 宋나라가 中原에서 淮水 이남으로 밀려났을 때 主戰論者의 한 사람으로서 金과의 결전을 주장한 장수 岳飛의 충절을 기린 책이다. 악비는 金軍을 여러 차례 대파하여, 송의 舊土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主和論者인 秦檜의 세력에 밀려 누명을 쓰고 죽었으며, 결국 남송은 금과 굴욕적인 和議를 하게 되었다. 후금과 싸운 심하전투에서 김응하가 전사하고 강홍립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은 채 후금과 화의 하였던 일이 당시 조선인들에게 역사의 되풀이로 여겨졌던 것이다. 『정충록』은 선조 17년(1584)에 조선에 전해진 후 그 해 겨울에 선조의 명에 의해 출간되었다.⁵³⁾ 중국에서 간행된 『정충록』에는 총 29장의 판화가 있었고, 선조연간에 간행된 『정충록』에는 초상화를 제외하고 34장의 판화가 있었다.⁵⁴⁾

『충렬록』판화와 『정충록』 삽화와의 관련성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응하의 초상을 卷首에 두었다는 점이다. 『정충록』에도 무목왕 악비의 초상이 앞에 수록되어 동일한 형식을 갖추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초상화 양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김장군유상>(도 3)은 좌안 7분면의 반신상인데 반해 <무목상>(도 4)은 중국 조복을 입은 악비의 모습으로 우안 7분면으로 가슴까지 화폭에 담았다. 김응하의 반신상이 이 처럼 좌안 7

52) 朴承宗, 『進忠烈錄箋』, 『忠烈錄』, “...又見字號於羽林介骨感激 第恐歲月之易逝而致事迹之不傳 紀寫生平實倣中丞傳之遺法 兼採歌詠略效精忠錄之舊規...”; 李敬輿(1585-1657), 『白江集』 권1, 『次八哀王思禮詩韻 詠金將軍應河 贈其胤伏波令公』, “曾在皇明萬曆四十六年 先將軍死義之日 適受任下邑 遂聞支撐宇宙之義烈 激昂感歎 至于隕涕 其時在朝薦紳之士 莫不歌詠其事 共岳武穆精忠錄並傳于世 不佞以不得列名編末爲恨.”

53) 김상엽, 『奎章閣 所藏『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挿畫』, 『미술사논단』 제9호(한국미술연구소, 1999), p.353.

54) 김상엽, 같은 논문, p.354.

분면인 점, 양 어깨의 형태나 경사 각도를 약간 과장하여 처리한 점, 다시 말해 인물의 왼쪽 어깨는 둥글고 넓적하게 표현하고 오른쪽 어깨는 경사가 지고 면적도 좁게 표현하여 7분면의 취세를 더욱 강조한 점, 그리고 사모의 모정이 평평하고, 양각이 넓고 짧으며 수평으로 부착되어 있는 점 등은 17세기 조선의 무관 초상화의 전형적 양식 특징을 드러낸다.⁵⁵⁾



도 3
『金將軍傳』,
<김 장군 유 상>,
목판화, 15.9×22.8cm,
규장각(규12020)



도 4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 <武穆像>,
선조간본, 목판화, 규장각소장(고귀923.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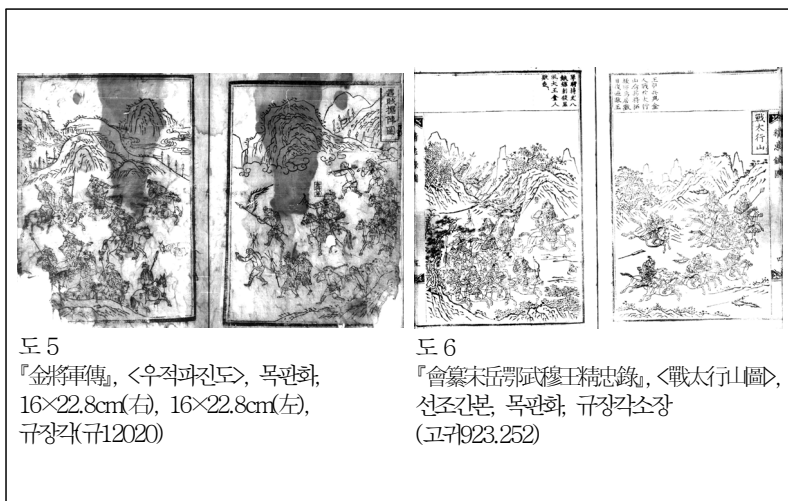
이어지는 판화 4점은 심하전투를 그린 것으로 서른 점 내외의 전투 장면이 수록되었던 『정충록』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김응하의 행적을 이처럼 여러 폭의 판화로 구성한 점은 그 관련성을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 간행되었던 충신도의 경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 보듯 충신의 행적을 한 점의 판화에 압축하여 나타내었던 것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다. 이 때 첫 세 점은 김응하의 활약상과 장렬한 전사 장면을 보여주지만

55) 17세기 조선 초상화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조선미, 『朝鮮時代 武官肖像 畫의 樣式的 展開 및 그 特徵에 대하여—正裝官服本을 중심으로』,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예경, 2007, pp.419-446; 권혁산, 『조선중기 공신화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pp.63-86.

深河戰鬪의 名將 金應河와 『忠烈錄』 판화

네 번째 그림은 김응하 死後 조선군의 투항 장면을 담았다. 이는 강홍립·김경서의 항복을 대조시킴으로서 김응하의 충절을 더욱 드높이기 위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충렬록』 판화는 책을 펴들 때의 좌우 양면이 한 장면을 이룬 兩面連式이라는 점이 특징인데, 이 또한 『정충록』 중의 판화와 공통된 점이다. 이는 1617년 국가적 사업으로 제작되었던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판화책의 한 면에만 그림이 실린 單面式이었던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경우 여러 충신·효자·열녀들의 행적을 모아 엮은 책이라는 점에서 『충렬록』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임진왜란 의병장 趙憲의 행적을 담아 1618년에 제작된 『抗議新編』의 경우는 한 충신의 절의를 기린 책이라는 점에서 『충렬록』과 성격이 동일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고 역시 單面式으로 각 그림은 한 면만을 차지하고 있다.⁵⁶⁾



도 5
『金將軍傳』, <우적파진도>, 목판화,
16×22.8cm(右), 16×22.8cm(左),
규장각(규12020)

도 6
『會纂末岳陞陸穆王精忠錄』, <戰太行山圖>,
선조간본, 목판화, 규장각소장
(고구923.252)

56) 『항의신편』의 간행과 판화 특징에 대해서는 유미나, 「임진왜란 의병장 趙憲(1544~1592)의 행적을 그린 『抗議新編』 판화 고찰」, 『강좌미술사』 제35호,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2010. 12, pp.115-140 참조.

『충렬록』 초간본 판화 중 <우적과진도>(도 5)와 『정충록』 선조본 <戰太行山圖>(도 6)를 비교해 보겠다. <전태행산도>는 악비의 태행산에서의 전투를 나타낸 것이다. 왼쪽 화면에는 남송군을 그렸는데, 중앙에 창을 든 악비가 있다. 오른쪽 화면에는 말을 타고 활이며 투구 등을 떨어뜨리며 달아나는 금군의 모습이 표현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두 판화는 兩面連式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둘째, 전투 장면의 배경으로 산수 원경과 근경이 설정되었다는 점이 동일하다. 화면 상단에 황으로 펼쳐진 산수를 배치하고 화면 하단에는 山石의 일부를 묘사한 근경을 배치하여 공간감과 현장감을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중앙의 전투 장면에 집중시켰다. 셋째, 『충렬록』에서 좌우에 각각 김응하의 군사와 後金軍을 나누어 배치한 점이 『정충록』에서 각각 악비의 군사와 金軍을 나누어 배치한 점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정충록』 <전태행산도>에서 오른쪽 화면의 우측 상단 직방형의 칸 안에 ‘戰太行山’이라는 畫題가 명기되었다. 『충렬록』 중의 <우적과진도>에서도 오른쪽 화면의 우측 상단에 직방형의 칸을 마련하고 제목을 넣어 같은 형식을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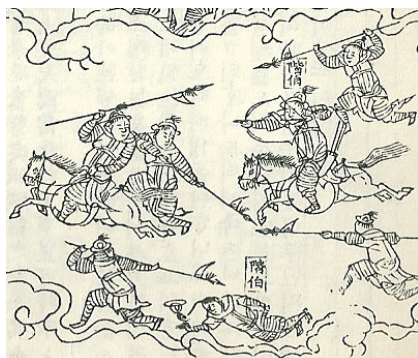
『충렬록』 초간본 중의 <의류사적도> 인물 표현(도 7)을 보면 중국에서 간행된 『정충록』 판화와는 다르지만, 국내에서 간행된 『정충록』 선조본과는 대동소이하다.(도 8) 『정충록』 선조본이 중국본을 재간행한 것이지만 판화 묘법은 조선화된 양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또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충신도 중의 <계백>(도 9)에 묘사된 인물표현과도 유사하다. 인체의 비례나 얼굴의 묘사, 갑옷의 표현 등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제작시기가 비슷하고 제작에 임했던 화가들이 동일 화단에서 활동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향의신편』<청주과적도>(도 10) 판화의 인물과 말 묘사는 뚜렷이 구별되는데 이는 『향의신편』이 私刊本으로서 밑그림을 맡은 이정의 개성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이 그림에서 말을 탄 인물은 왜군이기 때문에 착용한 옷이 다르다. 그러나 달리는 말의 박진감 넘치는 기세와 인물의 역동적인 자세의 표현은 이정의 大家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도 7 『金將軍傳』, <의류사적도>, 부분, 규장각(규12020)



도 8 『會纂末岳鄂武穆王精忠錄』, <兩戰常州>, 부분, 선조간본, 목판화; 규장각소장(고귀923.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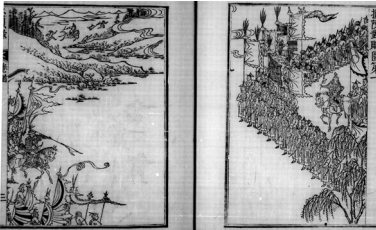
도 9 『東國新續三綱子實圖』, <階伯>,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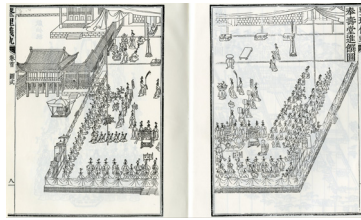
도 10 『抗寇新編』 <창주과적도> 부분, 목판화; 국립중앙도서관

『중간 충렬록』 판화는 초간본 판화에 근간을 두었으며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었고, 판화의 밑그림 화풍도 전혀 다르다. 그러나 <파진대적도>(도 11)을 보면 전체적 형식은 『정충록』에 근거했던 초간본의 형식을 견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兩面連式으로, 좌우면이 연결되어 한 장면을 이룬 점을

먼저 들 수 있다. 절첩부에서 부득이 화면이 끊어지지만, 그림 속에서도 절첩부 쪽 공간을 비워 시원한 공간감과 현장감을 살렸을 뿐 아니라 이를 절묘하게 활용하여 양군이 대치한 전장에서 거리감과 긴장감을 더욱 살렸다. 화면 속에 빈 공간과 채운 공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탄탄한 구성력이 돋보이는 점은 초간본 판화에 비해 더욱 진진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도 11 『重刊忠烈錄』 <과잔대적도>, 목판화, 13.8×21.5cm(右), 15.3×21cm(左), 규장각(191320)



도 12 『園幸乙卯整理義軌』 <奉壽堂進賢圖>



도 13 貞世寧王致誠 <乃樹園賜宴圖>, 부분, 1755년, 건본채색, 221.2×419.6cm, 北京 故宮博物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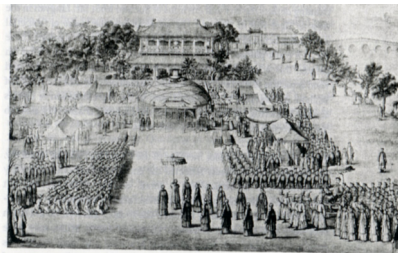


Figure 7. Giuseppe Castiglione, Banquet for the Western Monarchs at the Hall of Purple Light
도 14 <紫光殿賜宴圖>

아울러 平遠景을 이루며 멀리 물러나는 산수 배경은 조선후기에 화단에 수용되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서양의 원근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초간본 판화에서 산수 배경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높은 산들로 이루어졌으

며 원근감을 인식한 흔적이 없었던 점과 대비된다. 『중간 총렬록』의 판화에 보이는 원근법의 수용과 질서정연하게 서있는 병사들의 대열, 또 그 대열이 각을 이루며 꺾이는 점은 청대 궁정회화의 영향이다. 궁정화사 郎世寧·王致誠 제작의 <萬樹園賜宴圖>(도 13)는 乾隆帝가 피서산장인 萬樹園에 몽고부족의 수장들을 불러 연회를 베푸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1755년에 제작된 이 그림에 두 줄로 도열한 신하들과 그 줄이 두드러지게 직각으로 꺾인 모습이 눈에 띈다. 청대의 궁정회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은 1770년에 동판화로 찍은 <紫光殿賜宴圖>(도 14)에도 보인다. <만수원사연도>와 같은 비단에 채색을 사용한 어람용 작품이 18세기 말에 조선에 알려졌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자광전사연도>와 같은 동판화는 북경을 왕래한 사행원들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제를 비롯하여 여러 신하들과 호위병사들이 도열한 모습이나 줄을 지어 행진하는 모습을 俯瞰視로 입체감 있게 묘사한 <華城陵幸圖屏>의 그림은 서양화법을 수용한 독특한 기록화로 그동안 주목을 받아 왔는데,⁵⁷⁾ 이는 청대 궁정회화의 영향을 수용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1795년 정조의 모친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기록한 의궤인 『園幸乙卯整理儀軌』 중의 판화인 <奉壽堂進饌圖>(도 12)에서도 宮庭에서 벌어지는 궁중 연회를 부감시로 입체감을 살려 묘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뜰에 열을 지어 앉은 이들이 ‘ㄱ’자로 꺾인 점을 특징적으로 살필 수 있다.

57) <華城陵幸圖屏>에 보이는 서양화법의 영향에 대해서는 박정혜, 『<水原陵幸圖屏>研究』, 『美術史學研究』189, 한국미술사학회, 1991, pp.27-68; 동지, 『조선시대 궁중기록화연구』, 일지사, 2000, pp.295-397; 이성미, 『조선시대 그림 속의 서양화법』, 소와당, 2008 참조.



도 15 『重刊 忠烈錄』, <원와독전도>, 목판화, 13.8×21.2cm(右)·15.2×21.0cm(左), 규장각(규1320)

도 16 金德成 외, <漢王中矢捫足圖>, <中國小說繪模本>,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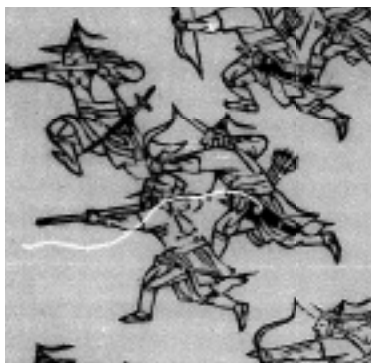
도 17 『重刊 忠烈錄』, <양수투항도>, 부분 목판화, 15.1×21.0cm, 규장각(규1320)

도 18 『오률행실도』, <傳察直立圖>

한편, 『중간 충렬록』 판화의 역동적인 화면 구성과 다양한 무예 자세를 보여주는 인물의 표현이 진전된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 특징은 중국에서 전래된 판본 소설책의 삽화를 베꼈다고 생각되는 『중국소설회모본』 중의 그림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원와독전도>(도 15)는 김덕성 등이 18

深河戰鬪의 名將 金應河와 『忠烈錄』 판화

세기 중반에 그린 『중국소설회모본』 그림 중의 <漢王中矢捫足圖>(도 16)와 상당한 유사성을 띤다.⁵⁸⁾ 鳥瞰視로 비스듬히 내려다 본 시점과 원경은 평원으로 멀어지는 점, 화면 속의 공간 활용에서 연관성을 보여준다. 세부 표현에 있어서도 산과 언덕의 형태감각, 윤곽선에 능각을 세운 강직한 묘선, 단선점준으로 부피감을 나타낸 점, 肥瘦가 있는 필선 등이 깊은 영향 관계가 있고, 각종 무예 자세를 역동감있게 표현한 점도 연결이 된다. 『중국소설회모본』은 18세기 중엽 중국에서 들어온 소설류 서책의 삽화를 모사한 것으로 궁중에서 열람된 것이지만 이같은 회화 제작에 도화서의 화원이 참여함으로써 그 화풍의 영향은 널리 파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 19
위의 <원외독전도> 부분



도 30
김후신 <대궐도> 부분, 간송미술관

『중간 충렬록』 판화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진 金厚臣은 부친 金喜誠에 이어 도화서 화원으로 봉직하며 각종 국가적 행사에 畫役을 담당하였으며, 어진 제작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는 도화서 화원으로 1772년~1778년에 국가적 행사에 참여한 기록이 있고,⁵⁹⁾ 1763년과 1773

58) 김상엽, 『金德成의 <中國小說繪模本>과 朝鮮後期 繪畫』, 『美術史學研究』 207, 한국미술사학회, 1995, pp.49-71.

년에 영조의 어진, 1781년에는 정조의 어진을 그리는 데에 참여하였다.⁶⁰⁾ 『중간 충렬록』 판화에 사용된 필선을 보면, 그는 언덕의 표현에 능각이 반복적으로 돌출된 윤곽선을 사용하였고, 준법은 강직한 단선점준을 가하였는데, 이는 비슷한 무렵의 『오륜행실도』(1797) 판화에 사용된 필선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중간 충렬록』의 <양수투항도>(도 17)와 『오륜행실도』 중의 <부찰직립도>(도 18)를 비교하면 후자의 산과 언덕에 보이는 荷葉皴 표현과 불이 살찌고 둥글둥글한 이목구비를 갖춘 인물의 묘법에서 김홍도 화풍의 영향이 두드러져 뚜렷한 차이점을 살필 수 있다.⁶¹⁾ 김후신이 김홍도와는 다른 개성을 지녔음을 엿볼 수 있으나, 아쉽게도 김후신의 유존작이 드물어 화풍의 본격적 비교는 용이치 않다. 굳이 비교하자면 『중간 충렬록』 <원와독전도>(도 19)와 <대괘도>(도 20)에서 앞으로 달려 나가는 인물의 설정과 기울어진 몸의 자세, 휘날리는 옷깃의 표현, 묘사 방법 등에서 공통점이 감지되지만, 판각과 인쇄를 거친 판화와 육필의 회화 작품을 비교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묘법을 구사하였을 도화서 화원의 역량을 고려할 때 김후신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다만 『중간 충렬록』이 18세기 말 화풍을 대변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59) 김후신은 본관이全州, 호는 霽齋이며, 관직은 찰방을 지냈다. 부친은 도화서 화원 金喜誠이다. 김후신이 참여한 것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행사 의궤로는 『毓祥宮諡號都監儀軌』(1772), 『顯宗追尊號英祖四尊號上號都監儀軌』(1772), 『莊祖上諡封園都監儀軌』(1776), 『英祖國葬都監都廳儀軌』(1776), 『眞宗追崇都監儀軌』(1777), 『正祖孝懿后復位時冊禮都監儀軌』(1778), 『英宗眞宗祔廟都監都廳儀軌』(1778), 『英祖貞純后尊號尊崇都監儀軌』(1778), 『莊祖獻敬后進號都監儀軌』(1778)가 있다. 朴廷蕙,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 제9호(미술사연구회, 1995), pp.236-237.

60) 趙善美, 『韓國의 肖像畫』(悅話堂, 1983), p.152. 영조의 어진 제작에 관한 기록은 『承政院日記』1334책, 영조 49년(1773) 1월 己亥(9일); 丙午(16일); 戊申(18일); 壬子(22일)에 보이고, 정조의 어진 제작에 관한 기록은 『承政院日記』1494책, 정조 5년(1781) 9월 乙卯(16일); 1495책 10월 己卯(10일)에 있다. 한편, 1763년에 김후신이 영조 어진 제작에 참여하였던 사실은 『승정원일기』1539책, 정조 7년(1783) 8월 戊子(29일), “...金喜誠子厚臣, 又以癸未年御眞模寫之功, 特除東班職...”이라는 구절을 통해 짐작이 된다.

61) 『오륜행실도』의 산수 표현양식에 대해서는 유소희, 『『五倫行實圖』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 pp.47-51.

이처럼 『중간 충렬록』 판화는 疏密의 변화감을 살리고, 서양화의 원근법을 수용하여 탄탄한 구도와 긴장감이 살아있는 화면을 이루어내었다. 다양한 자세와 무기를 들고 전투에 임하는 인물들을 역동감 있게 묘사한 전투 장면은 전쟁기록화에서 신경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청대 궁중회화의 영향을 수용하고 중국에서 전래된 다양한 소설 삽화를 소화하여 이룬 것이었다. 회화의 효능에 관심이 높았던 문예 군주 정조의 지원과 방대한 양의 엄선된 중국 서적의 수입과 이에 따른 출판문화의 발달에 힘입은 바 컸음은 물론이다.⁶²⁾

5. 맺음말

이상 1619년 심하전투에 참전하여 後金軍에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金應河를 기린 『충렬록』의 판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판화는 광해군 13년(1621)의 『충렬록』 초간본과 정조 22년(1798)의 『중간 충렬록』의 첫머리에 수록된 판화로서, 본 연구에서는 그 밑그림에 대한 회화사적 고찰을 행하였다. 심하전투에서의 김응하의 戰死를 애도하기 위해 간행된 『충렬록』 초간본은 애초에 조선이 명나라에 원병을 보내는데 소극적이었고 심하전투에서 명군이 궤멸된 가운데 강홍립의 조선파병군이 後金에 투항을 하게 된 데에 대한 변명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또한 명분론에 투철하였던 조정 신료들이 김응하가 목숨을 바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다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 김응하에 대한 현창 작업을 적극 행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였다.

김응하에 대한 현창사업은 인조반정 이후에는 대명의리론 및 존주론과 맞물려 조선의 정체성을 대변하게 되었다. 즉,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무너진 동아시아문화질서를 정신적으로나마 유지하려는 의도로

62) 정조대 중앙관서나 지방관서에서 刊印한 官版本 서책은 판각이 정교하고 인쇄가 깨끗한 편이며, 그 중에서도 校書館藏版과 內閣藏版은 그 품이 자못 뛰어나며 조선시대 목판본을 대표하는 정작들이다. 천혜봉, 『韓國書誌學』, 민음사, 1997, pp.176-187; 이해경, 위의 논문, p237.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희생된 전사자나 충신·열사에 대한 현장 작업이 지속적으로 행해졌는데, 이는 그들이 체제 수호에 공이 있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병자호란 패배와 삼전도의 치욕 이후 대청복수론이 고개를 들면서 심하전투에서 死節한 김응하의 존재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중간 충렬록』의 편찬은 존주론의 실천과 병행되어 행해졌던 조선 후기의 김응하 현장 작업에 대한 총결산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초간본과 중간본은 간행 시기의 간격만큼이나 제작 배경도 상이하였으며, 판화의 양식 또한 뚜렷이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충렬록』 초간본과 『중간 충렬록』에 수록된 김응하의 초상화와 심하전투에서의 김응하의 활약을 묘사한 판화를 전쟁기록화의 한 사례로서 주목하였다. 『충렬록』 초간본 판화는 전쟁 직후에 제작이 되어 전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 기록화였던 데에 반해, 『중간 충렬록』은 3주갑(周甲), 즉 18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의 심하전투와 김응하의 공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판화의 구성에 있어서도 초간본에 김응하의 전사 장면이 두 장면이었던데 반해 중간본에서는 전사 장면이 하나로 줄어들고, 그 대신 그가 후금군에 대항하여 善戰했던 모습을 두 장면으로 늘렸다. 전쟁 직후에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의 죽음이 중요했던 반면, 18세기 말에는 오랑캐인 후금군에 맞서 善戰했던 측면이 더욱 중요시되었음을 말해준다.

『충렬록』 초간본의 판화는 그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北宋 멸망 이후 故土를 되찾으려는 南宋의 武將 岳飛를 기리며 그 행적을 담은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이하 精忠錄으로 줄임)의 판화를 근간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명의 가정연간(1522-1566)에 출간되었던 이 책은 선조 17년(1584)에 조선으로 전해져서 같은 해 선조의 명에 의해 국내에서 출간되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을 다루었던 『동국신속삼강행실도』나 『항의신편』 등의 전쟁기록화 판화와는 달리 『충렬록』 초간본 판화가 『정충록』 판화의 형식과 양식을 차용했다는 점은 두 서적이 모두 북방 오랑캐인 여진족에 대항한 名將을 다루었던 점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간 충렬록』 판화는 탄탄한 구도와 박진감이 넘치는 화면 구성에 서양화의 원근법을 수용하여 회화적 완성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다. 이에 정교

深河戰鬪의 名將 金應河와 『忠烈錄』 판화

한 판각이 더해져 정조대 판화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이는 밑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진 김후신이라는 작가의 역량 뿐 아니라 정조대 방대한 양의 엄선된 중국 서적의 수입과 이에 따른 출판문화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병사들의 대열이 직각으로 꺾인 표현에서 청대 궁정회화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史書類

- 『(國譯)茶山詩文集』, 民族文化推進會, 1982-1994.
 『東國新續三綱行實圖』, 국립도서관, 1958.
 『園幸乙卯整理儀軌』, 상·중·하,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重刊 忠烈錄』, 규장각(奎1320, 古4650-168, 奎1695)
 『忠烈錄』, 국립중앙도서관(古152-26)
 『忠烈錄』(金將軍傳), 규장각(奎12020)
 『忠烈錄』, 규장각(古貴923.55-G417c)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 규장각(古貴923.252)

■ 단행본

- 고바야시, 『중국의 전통판화』, 시공사, 2002.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연구』, 일지사, 2000
 완산이씨, 『중국소설회모본』, 강원대출판부, 1993.
 이성미, 『조선시대 그림 속의 서양화법』, 소와당, 2008.
 정옥자,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2001.
 천혜봉, 『韓國書誌學』, 민음사, 1997.
 최소자, 『명청시대 중·한 관계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 논문

- 姜順愛, 「正祖朝 奎章閣의 圖書編纂 및 刊行」, 『규장각』 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6.
 金相燁, 「奎章閣 所藏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 插畫」, 『美術史論壇』 제9호, 한국미술연구소, 1999 한반기.
 김상엽, 「金德成의 <中國小說繪模本>과 朝鮮後期 繪畫」, 『美術史學研究』 207, 한국미술사학회, 1995.9.
 김성민, 「명말 요동 변경지역을 둘러싼 명-후금-조선의 삼각관계」, 『中國

深河戰鬪의 名將 金應河와 『忠烈錄』 판화

史研究』55, 2008.

남의현, 「明末 遼東政局과 朝鮮」, 『인문과학연구』26, 2010.

盧永九, 「壬辰倭亂 이후 戰法の 추이와 武藝書의 간행」, 『韓國文化』, 27, 2001.

류인순, 「철원지방 인물전설 연구 : 궁예, 김시습, 임거정, 김응하, 홍·류시, 고진해를 중심으로」, 『江原文化研究』8, 江原大學校江原文化研究所, '88.12.

文熙男, 「後金征伐 의 名將 , 金應河」, 『호국』 123, 國防部, '84.3.

박도화, 「英正祖代 佛教版畫의 特徵과 樣式」, 『講座美術史』12, 1999.

박정혜, 「<水原陵幸圖屏> 연구」, 『美術史學研究』189, 한국미술사학회, 1991.

朴廷蕙,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제9호, 미술사연구회, 1995.

朴 珠, 「朝鮮肅宗朝의 祠宇濫設에 대한 考察」, 『韓國史論』6, 서울대 국사학과, 1980.

서정흠, 「明末 Sarhu-(薩爾滸)戰과 그 性格」, 『安東史學』1 1, 1994.

송철호, 「17세기의 정표정책과 임병양란인물전」, 『釜山漢文學研究』11, 1997.

안대희, 「梁大樸의 실기 양대사마실기」, 『정조대의 문헌 2: 정조의 시문집 편찬』, 문헌과 해석사, 2000.

유미나, 「임진왜란 의병장 趙憲(1544~1592)의 행적을 그린 『抗義新編』 판화 고찰」, 『강좌미술사』제35호, 2010. 12,

유소희, 「『五倫行實圖』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

유지원, 「사르후(薩爾滸, Sarhu)戰鬪와 누르하치」, 『明清史研究』13, 명청사연구회, 2000.

李丙燾, 「光海君의 對後金政策」, 『國史上的 諸問題』1, 국사편찬위원회, 1959.

이승수, 「深河 戰役과 金將軍傳」, 『韓國文學研究』제26집, 東國大學校韓國文學研究所, 2003. 12.

이 욱, 「조선후기 전쟁의 기억과 大報壇 제향」, 『宗教研究』42집, 2006.

이현주, 「기억 이미지로서의 동래지역 임진전란도」, 『한국민족문화』37, 2010.

이현주, 「동래부 화원 이시눌 연구」, 『역사와 경계』76, 2010.

李惠敬, 「正祖時代 官版本 版畫 研究」, 『미술사연구』20, 2006.

任完嫻, 「明·清 交替期 朝鮮의 對應과 『忠烈錄』의 의미」, 『漢文學報』 제

- 12집, 우리한문학회, 2005. 6.
- 정병모, 「『園幸乙卯整理儀軌』의 版畫史的 研究」, 『文化財』22호, 문화재관리국, 1989.12.
- 정옥자, 「正祖代 對明義理論의 整理作業—〈尊周彙編〉을 中心으로—」, 『韓國學報』제69집, 일지사, 1992.
- 조규희, 「경화사족의 전쟁기억과 회화」, 『역사와 경계』71, 2009.
- 조선미, 「朝鮮時代 武官肖像畫의 樣式的 展開 및 그 特徵에 대하여—正裝官服本을 중심으로—」,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예경, 2007.
- 조행리, 「조선시대 전쟁기록화 연구: <동래부순절도> 작품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0.
- 지두환, 「조선 병자호란 충신 열사에 대한 현창정책」, 『한국학논총』34, 2010.
- 천혜봉, 『(개정판)韓國書誌學』, 민음사, 1999(원판: 1991).
- 한명기, 「한국 역대 해외파병 사례 연구—1619년 『深河 전투』참전을 중심으로—」, 『軍事史 研究叢書』제1집, 2001.
- 韓明基, 「16, 17세기 明清交替와 한반도」, 『명청사연구』22, 2004.
- 한명기, 「“재조지은(再造之恩)”과 조선후기 정치사 -임진왜란~정조대 시기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59, 2007.
- 향토방위보사 編, 「김응하 장군전」, 『향토방위』28, 향토방위보사, '70.5.
- 향토방위보사 編, 「김응하 장군전」, 『향토방위』27, 향토방위보사, '70.4.

【부록】

■ 김응하 관련 문헌

저자	문집명	기사명	비고
沈喜壽(1548~1622)	一松集	挽金將軍應河	
柳根(1549~1627)	西垞集 권1	題忠烈錄	
宋英耆(1556~1620)	瓢翁遺稿 권2	挽金將軍 應河	
黃汝一(1556~?)	海月集 권3	題金將軍 應河 忠烈錄後	
"	海月集 권7	咏金將軍 應河 詩序	
柳夢寅(1559~1623)	於于集 권6	題金將軍傳後	
"	於于集 後集 권2	輓金將軍應河	
"	於于集 後集 권4	題權學官 伏 西征錄	
李尙毅(1560~1624)	少陵集 권1	哭金將軍應河	
崔希亮(1560~1651)	逸翁集 권1	哀遼東伯 金將軍應河	
玄德升(1564~1627)	希菴遺稿 권1	追挽金將軍 應河	
李廷龜(1564~1635)	月沙集 권7	庚申朝天錄 上(1620)	
"	月沙集 권31	庭試試官後筭	
"	月沙集 권40	忠烈錄序	
朴希賢(1566~?)	忠烈錄	金將軍傳	傳
申欽(1566~1628)	象村集 권8	悼金應河	
丁運熙(1566~1635)	孤舟集 권2	題忠烈錄後	
李澈(1566~1651)	弘道遺稿 권3	金將軍廟	
姜籀(1567~1651)	竹窓集 권2	金將軍 應河 挽(五言律詩)	
"	竹窓集 권5	金將軍 應河 挽(七言律詩)	
趙亨道(1567~1637)	東溪集 권3	弔遼東伯武烈金將軍 應河	
곽진(1568~1633)	丹谷集 권2	題龍澗忠烈錄	
朴弘美(?~?)	灌圃集 권上	金將軍 應河 哀挽	
鄭允穆(1571~1629)	清風子集 권2	詠金將軍應河	
李安訥(1571~1637)	東岳集 권12	金將軍應河挽詞	
洪瑞鳳(1571~1645)	鶴谷集 권3	金將軍應河挽	
李命俊(1572~1630)	潛高遺稿 권2	謫裏與諸賢唱和	
洪命元(1573~1623)	海峯集 권3	金將軍歌	
李民奩(1573~1649)	紫巖集 권5	柵中日錄	傳
金友伋(1574~1643)	秋潭集 권4	題金將軍應河傳後	
申達道(1576~1631)	晚悟集 권8	本朝訓鍊都監進金應河忠烈錄箋	
沈光世(1577~1624)	休翁集 권1	題忠烈錄後	
金榮祖(1577~1648)	忘窩集 권3	讀金將軍 應河 傳有感	
金堉(1580~1658)	海東名臣錄 권4	金應河	傳
李植(1584~1647)	澤堂集 권1	金將軍應河挽詞	

저자	문집명	기사명	비고
李敬輿(1585~1657)	白江集 권1	次八哀王思禮詩韻 詠金將軍應河 贈其胤伏波令公	
洪翼漢(1586~1637)	花浦遺稿 권4	金將軍傳後叙	
趙綱(1586~1669)	龍洲遺稿 권19	贈領議政金將軍神道碑銘 并序 (1658년 이후 씀)	
張維(1587~1638)	谿谷集 권30	哀金將軍應河 二首	
李弘有(1588~1671)	遜軒集 권2	悼金將軍 應河	
曹文秀(1590~1647)	雪汀詩集 권4	金將軍哀詞 名應河	
朴瀾(1592~1645)	汾西集 권4	哀金將軍 應河	
沈東龜(1594~1660)	晴峯集 권5	哀金將軍長篇 次安聖觀韻	
李回寶(1594~1669)	石屏集 권1	過金將軍第	
李明漢(1595~1645)	白洲集 권2	哀金將軍 應河 歌	
"	白洲集 권5	哀金將軍 應河	
李景奭(1595~1671)	白軒集 권47	部將贈兵曹參議張公墓碣銘(張繼先)	심하전사자
宋國澤(1597~1659)	四友堂集 권1	聞金將軍應河戰歿 與金上舍光懋相對 一櫛之餘 次任疎庵僧軸韻 少摠憤懣	
李昭漢(1598~1645)	玄洲集 권7 擬箋 1편	擬本朝訓鍊都監進忠烈錄箋	
李時省(?~?)	駢峯集 권1	金將軍戰死圖	圖
尹元學(1601~1672)	龍西集 권1	挽金將軍 應河	
黃曄(1605~1654)	塘村集 권5	忠烈錄跋	
宋時烈(1607~1689)	宋子大全 권171	詔贈遼東伯金將軍廟碑	
尹鑑(1617~1680)	白湖全書 권34	楓岳錄	
李震白(1622~1707)	西巖遺稿 卷上	題忠烈錄金將軍倚柳射胡圖	圖
金壽增(1624~1701)	谷雲集 권1	成都述懷	
閔鼎重(1628~1692)	老峯集 권6	書答尤齋 己酉	서간
申厚載(1636~1699)	葵亭集 권6	題金將軍傳後	
金萬重(1637~1692)	西浦集 권1	宣川懷金將軍	
李沃(1641~1698)	博泉集 권9 西州錄 [下]	憶金將軍 二首	
崔愼(1642~1708)	鶴庵集 권3	華陽聞見錄 語錄	
金昌協(1651~1708)	農巖集 권4	金將軍祠	
洪世泰(1653~1725)	柳下集 권2	登宣川倚劍亭 憶金將軍	
"	柳下集 권9	金將軍傳	傳
朴泰輔(1654~1689)	定齋集 권2	吊金將軍 用子聞內兄韻	
"	定齋集 권4	書金將軍逸事	
李栽(1657~1730)	密菴集 권16	金將軍應河傳	傳
金昌業(1658~1721)	老稼齋集 권5	燕行垣篋錄 金將軍祠宇	
"	老稼齋集 권5	燕行垣篋錄 金將軍祠宇	
"	燕行日記 권9	癸巳年(1713) 3月17日(甲午)	
李宜顯(1669~1745)	陶谷集 권2	次西浦忠烈祠韻 哀金將軍	
趙泰億(1675~1728)	謙齋集 권16	宣川府 朴定齋曾謫此地 金將軍有	

深河戰鬪의 名將 金應河와 『忠烈錄』 판화

저자	문집명	기사명	비고
		祠宇 故五六云	
南漢紀(1675~1748)	寄翁集 권5	題具仁甫詩草後	
李緯(1680~1746)	陶菴集 권11	答俞展甫	
李瀾(1681~1763)	星湖僊說 권8 人事門	少陵厚德	
尹鳳九(1683~1768)	屏溪集 권5 錦溪集 권8	副正魯公 鴻 墓表 庚辰(1760년)	심하전사자
姜再恒(1689~1756)	立齋遺稿 권19	金應河傳	傳
南克寬(1689~1714)	夢囈集	夢囈集坤 雜著	
趙顯命(1690~1752)	歸鹿集 권1	深河 吊金將軍	
趙慶男(?~?)	續雜錄一	萬曆 47年, 光海君 12年(1619)	傳
朴思浩(?~?)	心田稿 권2	留館雜錄 深河殉節記	
金元行(1702~1772)	漾湖集 권3	答俞相國 論金將軍應河事	
蔡濟恭(1720~1799)	樊巖集 권50	嘉義大夫慶尙左道兵馬節度使盧公墓碣銘	심하전사자
金燮(1723~1790)	竹下集 권3	感興	
洪良浩(1724~1802)	海東名將傳	金將軍傳	傳
魏伯珪(1727~1798)	存齋集 권23	義士梁公傳	심하전사자
金鍾秀(1728~1799)	夢梧集 권7	阿耳萬戶趙公行狀	심하전사자
成大中(1732~1809)	青城集 권2	倚劔亭 用老杜成都府韻	
俞漢雋(1732~1811)	自著 권14	傳	傳
"	自著 續集 冊2	故忠臣崔公忠元死節錄序	
李肯翊(1736~1806)	練藜室記述 권21	廢主光海君故事本末	傳
朴準源(1739~1807)	錦石集 권4	贈崔淳翁後孫奎顯 并序	심하전사자
李家煥(1742~1801)	錦帶詩文鈔 下	崔義士贊	심하전사자
金載瓚(1746~1827)	海石遺稿 권4	題崔烈士傳後	심하전사자
正祖(1752~1800)	弘齋全書 권24 祭文 6	遼東伯金應河致祭文	
正祖(1752~1800)	弘齋全書 권21 祭文 3	遼東伯金應河褒忠祠致祭文	
正祖(1752~1800)	弘齋全書 권7 詩 3	書揭鐵原褒忠祠	
李泰壽(?~?)	重刊 忠烈錄	傳	傳
李晚秀(1752~1820)	履園遺稿 권7	玉局集, 健陵行狀	
成海應(1760~1839)	研經齋集 續集 책15 風泉錄	深河殉節傳	傳
"	研經齋集 續集 책15 風泉錄	題金將軍遺札後	
南公轍(1760~1840)	金陵集 권13	書崔淳翁 永元 傳後	
丁若鏞(1762~1836)	茶山詩文集 권1 與猶堂全書 제1집 제1권	題金營將深河射敵圖-金將軍應河	圖
姜必孝(1764~1848)	海隱先生遺稿 卷15	新刊忠烈錄序	
金祖淳(1765~1832)	楓臯集 권13	判敦寧府事趙公諡狀	심하전사자
"	楓臯集 권15	崔淳翁忠義錄序	심하전사자

저자	문집명	기사명	비고
洪奭周(1774~1842)	淵泉集 권20	書崔烈士事狀後	심하전사자
金邁淳(1776~1840)	臺山集 권3	詠金烈士事	
尹定鉉(1793~1874)	粹溪遺稿 권7	趙孝文公 鎮寬 神道碑銘 并序	치제
趙斗淳(1796~1870)	心庵遺稿 권25	永柔縣令贈領議政李公 有吉 謚狀 (이유길)	심하전사자
柳疇睦(1813~1872)	溪堂集 권10	書風峯朴將軍事實後	심하전사자
李裕元(1814~1888)	林下筆記 권28	軍中拜將(金善弼)	후손
李裕元(1814~1888)	嘉梧藥略 冊18	遼東伯忠武金公墓誌	
韓章錫(1832~1894)	眉山集 卷2	題金將軍雪窖手跡帖後	김경서
韓章錫(1832~1894)	眉山集 卷2	忠烈祠 次金襄毅公燕獄韻 祠在龍 崗治南雲龍山下 奉金將軍景瑞	김경서
田愚(1841~1922)	艮齋集 後編 권1	答金元五	서간
"	艮齋集 後編 권18	金將軍 應河 贊 并序(1919년)	5周甲
柳麟錫(1842~1915)	毅菴集 권47	大明義士朴公墓碣銘 并序	심하전사자
미상	東野彙輯 권1	柳下將軍仗忠節	傳(아담집)
미상	歷代類編 17편	金應河	傳(아담집)

Abstract

Kim Eung-Ha, the Hero of the Sarhu Battle, and the Woodblock Prints of Chungnyeollok

Yu, Mi-N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is is an art-historical look into the woodblock prints of the Chungnyeollok published in memory of Kim Eung-Ha who was killed in action in the Sarhu Battle against Later Jin(後金) in 1619. The first edition of Chungnyeollok was published in 1621 to justify the fact that Joseon had been reluctant in sending reinforcements to Ming, and to defend the fact that Joseon troops led by Kang Hong-Nip(강홍립) surrendered to Later Jin. Meanwhile, the second edition of Chungnyeollok published in 1798 was a full synthesis of the all the efforts throughout Later Joseon Period to praise Kim Eung-Ha.

In fact, the praise for Kim Eung-Ha was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Theory of Fulfilling the Obligation to Ming (對明義理論) the Theory of Zhou-centered World (尊周論), and coincided with the identity of Joseon since the 17th Century. It was an effort to stay faithful to the fallen Ming, former ally, and to maintain at least in spirit the Ming-centered cultural order in East Asia. In such an intention, Joseon continued to praise the war dead, the loyal retainers, and the patriots who were victimized in Imjinweran(壬辰倭亂) or in Byeongjahoran(丙子胡亂) war. That was because they were considered contributors to defending the regime and the state. Especially after the defeat in Byeongjahoran(丙子胡亂) and the humiliating incident when Joseon king surrendered to Qing, China, Joseon people began to raise voices for revenge against Qing.

The death of Kim Eung-Ha in the Sarhu Battle who had fought against Later Jin(Qing), got to carry greater meaning.

The first and the second editions of *Chungnyeollok* each contains a portrait of Kim Eung-Ha, and four pieces of woodblock prints describing Kim Eung-Ha's military actions, which are noteworthy examples of war painting. The prints in the first edition of *Chungnyeollok* were designed after the *Jeongchungnok*, the book about the patriotic deeds of Yue-Fei (岳飛) of Southern Sung, China. The *Jeongchungnok*, which was published between 1522-1566 was imported to Joseon in 1584, and was republished in Joseon at the order of King Seonjo. Unlike the the books, *Donggukshinsok Sanganghaengsildo*(東國新續三綱行實圖) or *Hangeuishinpyeon* (抗義新編) which also deal with the war veterans of Imjinweran, the fact that *Chungnyeollok* took *Chungnyeollok* as a model can be because they both praised the generalwho fought against the Jurchins.

- Key Words: *Chungnyeollok*, Kim Eung-Ha, Story of General Kim, Sarhu Battle, The Theory of Fulfilling the Obligation to Ming, The Theory of Zhou-Centered World, *Jingzhonglu*, Kim Hu-Shin
- 주제어: 충렬록(忠烈錄), 김응하(金応河), 김장군전,(金將軍傳), 심하전투(深河戰鬪), 대명의리론(大明義理論), 존주론(尊周論), 정충록(精忠錄), 김후신(金厚臣)

접수일자: 2011. 4. 10 수정일자: 2011. 5. 20 게재결정: 2011. 5. 30

